

海清堂

2539년
여름호
제 6 호



송광사불교전문강원

승가교육개혁에 바란다

며칠 전 송광사강원으로 반가운 우편물이 하나 왔다.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전승련)에서 펴낸 올해년 하안거 학인방합록이 들어 있었다. 제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도반들의 법명을 찾아보느라 해청당이 한동안 떠들썩했었다.

전승련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6년, 그동안 숭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 구종법회의 감격을 잊을 수 있을까? 우리 학인들은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개혁의 전위에 섰었고, 개혁회의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각자의 수행처로 돌아가 구도에 전념함으로써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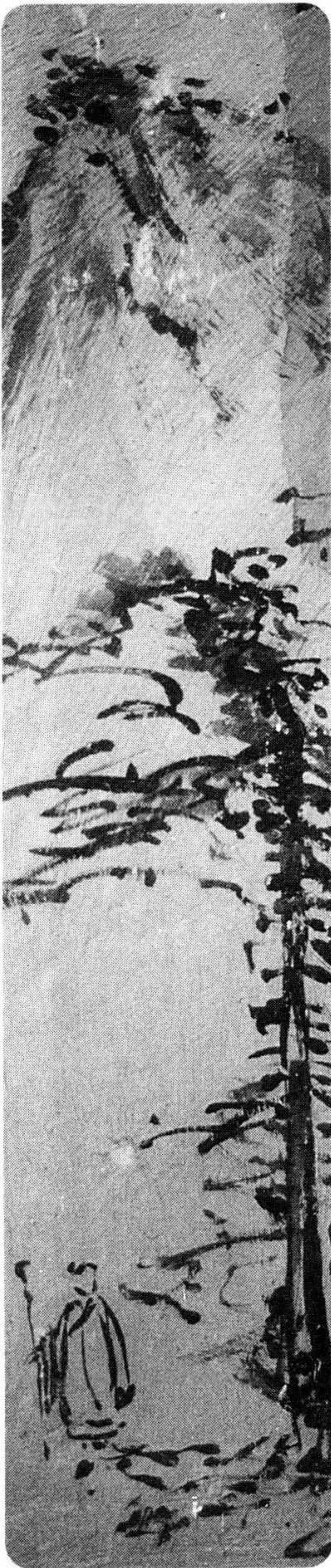
조계종에 개혁의 파도가 일렁인 지도 일년이 넘었다. 이제는 개혁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마음을 가라 앉히고 차분히 우리 자신을 살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세계는 6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대비해 국제화·정보화·다변화 등의 전략을 세우고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윤추구,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속에 인간성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지구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중생을 제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불교는 조선 오백 년의 탄압과 일제의 대처화, 해방 후 종단 분규로 대변되는 기나긴 암흑기를 벗어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을 따름이다. 천육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민족문화를 선도해 왔지만, 지금 이 땅은 불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에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불교의 운명과 미래가 우리 학인들의 수행에 달려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개혁의 한 성과로써 승가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이 설치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원에서 주최했던 세미나에 전국 강원의 강주, 강사, 학인이 전원 불참함으로써 출발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통강원의 위상과 명칭 문제가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미래가 승가의 교육과 수행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서로가 자기 명분을 내세워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하다가 천재일우로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잃고 다시 미궁 속에 빠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학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개혁의 주체와 당사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차 례



조계의 물소리 승가교육개혁에 바란다 포토에세이	
2/만장	한운
산문	
4/그래, 어서들어와	보원
6/도량에 깃든 멋스러움	정묵
9/입산 전후	선용
시	
8/별빛 하나	희일
일기	
12/청복	도선
소임기	
14/삼십센터 의자	노휴
화보	
17/운성스님 입적	
22/화보로 본 강원소식	
기획연재	
18/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기획「원전번역」	
26/증시랑에게 답하는 여섯 번째 편지	영경
28/경사록의 시에 차운함	희일
29/위산경책	한북
수필릴레이	
32/돌아오지 않는 월이	범능
33/출가생활	자월
35/취뿔도 모르실랑	정효
36/도량석	정원
독후감	
38/전강스님의 전기를 읽고	보안
입방소감	
39/두 가지 기록	승석
40/후기	
31/원고모집	
40/후원안내	





만장

생사가 둘 아니라고
거부하듯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나부껴라
「나 갈란다」 한 마디
미처 남기지도 못하고
저리 펴려이는가
바람은 어제부터 흔적도 없는데

사진 · 글 : 한운/사집

그래, 얼른 들어와

보원/사교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걸망을 싸서 홀연히 강원을 떠나는 스님들을 지켜보며, 누가 뭐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강원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곤 했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불일암 법정스님께 인사를 갔다가 '좋은 도량에서 꼭 박혀 십년을 살면 지덕을 입어 공부를 성취하기 쉽다'는 말씀을 듣고나서, 나는 십년은 몰라도 오 년은 송광사에서 살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그런 내가 이리 쉽사리 걸망을 쌀 줄을. 내가 걸망을 싸던 날 아침에 행자 도반인 같은 반 스님이 강원을 떠났다. 막상 나가달라는 반 대중의 요청을 받고 돌아서는 그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자니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날 밤 있었던 반 대중공사에서 반 전체를 위해 스님이 떠나야 한다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했던 나였기에 속이 다시원해야 할텐데, 오히려 가슴이 꼭 막혀 오는 것이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대중들이 사시 예불을 드리러 간 사이에 걸망을 꾸러 나오기는 했지만, 날이 저물자 갈 곳이 막막

했다. 방학 때 자주 가던 사숙 스님이 주지로 계신 장흥 보림사가 있긴 했지만, 은사스님이나 도반스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곳이어서 피난처로는 마땅치 않았다. 결제 중에 아무 절이나 가서 객질을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던 차에 문득 저번 방학에 기도

를 했던 보림사에서 자주 뵈었던 한 스님이 생각났다.

밤이 으스스해서야 절에 들어서니 공양주인 듯한 보살님이 나와서 맞으며 주지스님은 재 지내러 가셨다며 내일이나 오신다고 했다. 그래도 하룻밤 묵어 갈 수 없겠느냐니까 주지스님 처소로 안내해 줘서 주인도 없는 방에서 걸망을 풀었다.

방이 썰렁해서 보일러 스위치를 켜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방바닥이 따뜻해지질 않았다. 오돌오돌 떨다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 보일러를 점검해 보니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었다. 방바닥이 사람 덕 보는 냉방에서 한 마리 동태가 되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자니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부엌에 먼동이 터올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궁리한 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도량에서 결



제를 마치고 해제하면 선방에 방부를 들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날이 새서 도량을 둘러보니 토굴에 가까운 암자라 주지스님, 공양주가 쓰는 방 두 개 밖에 없어서 내가 머물만한 방사는 없을 것 같았다.

사시 예불을 마치자 주지스님이 돌아오셔서 인사를 올리고 솔직히 사정 말씀을 드렸다. 당신께서도 강원에 있어 봐서 학인들이 걸망을 싸는 것이 다반사인 줄은 알고 있지만, 결제 중에는 절 밖으로 송장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 가풍인데 어찌자고 이렇게 왔느냐며 따끔하게 경책하셨다. 스님은 햇차를 따라 주시며 기왕 왔으니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너무 늦기 전에 강원으로 돌아가고 타 이르셨다.

이튿날 공양주 보살님과 기도를 좀 하고 걸망에 넣어 온 선어록을 펼쳤지만 글은 들어오지 않고 책장 위로 은사스님, 도반스님들, 송광사 도량 구석구석이 스쳐지나갔다. 특히 늘 아껴 주시던 은사스님께 한 말씀도 드리지 않고 나온 것이 자꾸 가슴에 걸렸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화기를 들었다 놓고 말았다.

다음날도, 돌아가서 참회 드리고 다시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과, 불뚝 성질이 오락가락해서 헤매고 있는데, 기도를 마친 공양주 보살님이 오셔서 차한잔 주시겠냐고 하셨다. 보살님이 공양주로 계셨다는 화엄사와 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얘기를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보살님이 이 절로 기도하러 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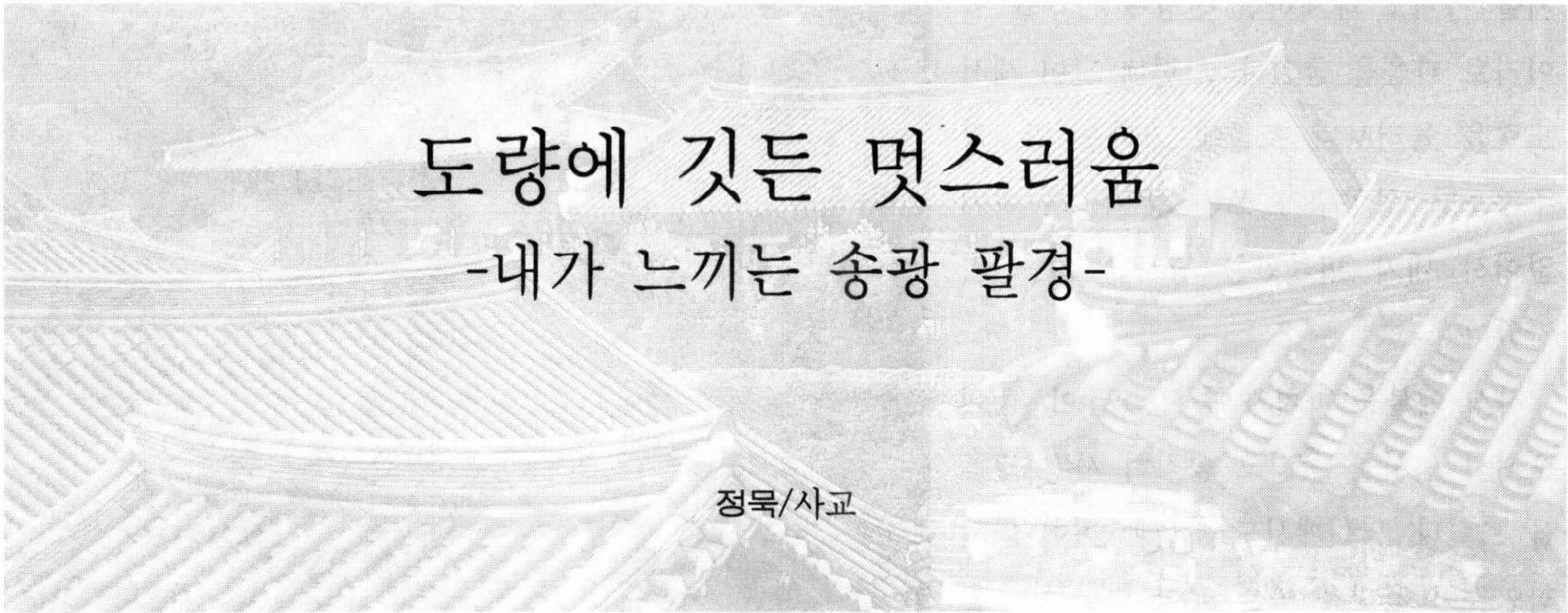
보살님이 오래 전부터 믿고 따르는 스님이 지리산 반야봉 아래 토굴에서 정진하고 계신데 지장보



살님처럼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대도를 깨닫기 전에는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고 정진하신 지가 벌써 십 년 넘었다고 했다. 그 스님은 혹 누가 발자국을 보고 찾아올까 봐 외부로 출입할 때는 이리저리 길을 옮겨 다녀 가끔씩 찾아오는 도반이나 신도들도 길을 못 찾아 헤맬 정도라고 했다. 얼마 전에 찾아뵈었더니 그 스님은 목숨을 걸고 함께 공부할 눈 밝은 도반을 만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매일 지장보살님께 빌고 있다면서, 보살님도 눈에 보이는 복만 지으려 하지 말고 마음 공부를 하라며 지장기도를 권해서 이 암자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보살님이 돌아가고 나는 한참동안 멍하게 앉아 있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은사스님께 꾸지람 들을 각오를 단단히 했었는데, 나의 변명을 끝까지 다 들으신 후에 스님은 딱 한 말씀하셨다.

“그래, 얼른 들어와.”



도량에 깃든 멋스러움

-내가 느끼는 송광 팔경-

정목/사교

열여덟 분의 훌륭한 선지식이 출현하시어 널리 법을 펼치리라 해서 松廣寺라 이름하는 곳.

처음엔 吉祥이라 하였듯이 조계산 서록에 세연을 멀리 떨쳐 버린 듯한 두 겹 연잎 속에 들어앉은 寶房은 청정 법신이 그대로 연화좌에 나투심이라.

보조국사 이래 십육 국사가 연이어 나오셨고, 조선 중기에는 청허당 서산 대사와 쌍벽을 이루던 선수 부휴 스님과 그 분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머무셨다. 또 근세 들어서는 정진 제일로 이름난 효봉 스님이 주석 하였고, 이후는 구산 전 방장 스님

을 비롯한 그 분의 문손들이 淸淨 牧牛家風으로 수행하는 승보 종찰이다.

이곳 자연은 눈에 확 뜨이는 빼어난 아름다움이 나 특 트인 시원함은 없을지라도, 속세의 깊은 熱惱를 식혀 주고 들뜬 마음을 달래어 절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해주는 수행 도량의 기운이 감돌기에, 살아갈수록 살뜻한 정겨움 속에 은근한 멋스러움과 여유가 깃들어 우리 수행자에게겐 그야말로 보살의 품속 같은 곳이다.

또 지금은 그 원형을 완전하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華嚴法界圖에 따라 이루어진 도량 배치는 내



용과 형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곳에 도량이 있어 산과 물이 맑아지고, 산과 물이 있어 그 도량이 더욱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옛 사람은 송광사 팔경을 이렇게 꼽으셨다.

첫째는 一柱探碑니 일주문 앞에 숲처럼 모여 있는 선수 부휴 스님의 碑를 비롯한 先師님들의 비를 감상하는 것이다.

둘째는 六鑑觀魚이니 시냇가에 세워진 六鑑亭에서 고기의 노닐을 살핍이다.

셋째는 香壇白樹이니 우화각 앞에 보조스님이 꽃으신 지팡이가 자랐다는 향나무로, 보조스님의 환생을 기다리는 의미가 서린 枯香樹이다.

넷째는 雨化淸風이니 우화각에서 청풍으로 열뇌를 식힘이요.

다섯째는 枕溪聽石이라. 침계루에 앉아 바위를 타고 굽이치는 물소리를 즐김이다.

여섯째는 靈樓賞月이니 도성당 영광루에서 조계산 너머에서 솟는 眞如의 둥근 달을 품어 봄이요.

일곱째는 三日靈泉이니 7세 담당국사가 드시고 3일만에 깨치신 그 물로 인간사 渴愛를 식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甘露寶塔이니 관음전 뒤편 돌계단을 딛고 올라, 보조스님의 사리탑인 감로보탑에 참배하고, 뒤돌아 서서 아릿하게 펼쳐지는 산자락과 모후산의 저녁노을 즐기는 것이다.

이상은 송광사에 머물다 가신 옛 스님들이 꿈으신 송광 팔경이고, 이제는 내가 삼 년여 이 도량에 살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송광 팔경을 새롭게 꼽아 볼까 한다.

하나는 대웅보전에 모셔진 보현보살님 상호에 깃든 미소이다. 송광사 대웅보전에는 과거불인 연등부처님, 현재불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을 모셔 佛佛이 서로 傳承하심을 나타내고, 그 사이엔 관음, 문수, 보현, 지장 사대 보



살님이 나투셨다. 108평의 너른 자리 위에는 36개의 큰 기둥이 허공을 떠받치어 亞字形 탑과 형태를 이루니, 중생의 108번뇌를 남김없이 녹이는 곳이다. 거기에 모셔진 불보살님의 상호는 모두 원만하시지만, 어린 중생의 눈에는 보현보살님의 상호에 깃든 그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하고도 맑으면

서도 고요하여 한 점 티끌도 묻어 나지 않는 미소에서 아늑한 품에 안기는 안도를 느낀다.

둘은 대웅보전 뒤편의 돌 축대를 감상하는 것이다. 송광사 도량은 크게 상·중·하대로 구성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축대를 쌓게 되었다. 상대를 구성하기 위해 쌓은 이 축대가 지금은 담쟁이덩굴에 가리워져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밑단은 볼 수 있다. 그저 아무렇게나 쌓은 것이 아닌 자연석을 모양 그대로 살짝만 다스려 모자이크하듯이 쌓아 올렸다. 그 큰돌을 들어올리기도 어려웠을텐데, 그 모양을 하나 하나 맞추어 가며 쌓았으니 그 신심이 얼마나 대단하였을까?

셋은 영산전과 약사전의 端雅한 모습을 보며 흠어진 마음을 여미는 것이다. 두 건물은 모두 영·정조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영산전은 약관의 수좌를 보는 듯하고 약사전은 열댓살 먹은 동자승을 닮았다. 작지만 왜소하지 않아 튼튼한 수좌의 앓음새처럼이나 당당하고 안정되어 있고, 꾸밈이 화려하지 않아 단아한 멋이 스며 있다.

넷은 국사전의 중후하지만 시원한 느낌이다. 국

별빛 하나

회일/사교

그립다

별빛 하나

은하 저편 기슭

풀벌레 우는데

숨은 별빛

내

게

로

와

새벽토록 마주하고

설핀 잠에까지

가까운 별빛

손 한 번 그어

견딜 수 없는 거리 재다가

별빛 하나

그립다

사전 뒤편의 雉落臺가 보조 국사께서 정혜결사의 도량을 정하고자 모후산에서 솔갱이(나무로 만든 매)를 날렸을 때 떨어진 곳이라 하듯이, 여기에 서면 송광사의 안산인 모후산이 치우침 없이 바로 나타나고, 이 도량에선 유일하게 푹 트였으면서 좌우의 산자락이 감싸고 있어 절로 삼매에 듭직한 곳이다.

다섯은 침계루에서 삼경 후 三昧에 젖어 드는 멋이다. 보름달보다는 반달이 더 좋다. 추녀 끝을 살짝 비킨 바위 사이로 흐르며 부서지는 하얀 물거품 위로 흩어진다. 잠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추스려 외연을 꿰고 가부좌를 틀 때 한 줄기 청풍의 슬슬 함은 본래 고향소식 아니런가.

여섯은 일주문에서 청량각까지 도량길을 포행함이다. 발밑에 그대로 와 닿는 땅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며 청아한 시냇물의 노래를 들으며 여유롭게 자란 노송과 치솟은 편백나무의 어우러짐을 속에서, 法音を 전하는 새소리를 듣는 기쁨이 있다.

일곱은 碑殿에 이르는 대숲 길의 정취다. 안개가 얇게 드리운 아침,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느끼며 걷다 보면 어느덧 부도밭에 이르러 무상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여덟은 후원 행자님의 장한 신심이다. 모든 것을 녹일 듯한 信心으로, 자신을 비우고 널리 청정 대중을 받들며, 한 자락 남은 미련은 바쁜 일과 속에 묻어 버리고 초발심자의 치열함과 순수함으로 온 도량을 환히 밝혀 준다.

그러나 멋을 느끼나 결코 취함이 없이, 그 무엇에도 매임이 없는 雲水行者로 오늘을 살며 법성료에서 낭랑한 목청으로 간경 삼매에 드는 맛이 그중 제일이지 아니겠는가.

입산 전후

선용/사집

지 금으로부터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울 방학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86년 11월말이었다. 그날도 아침을 건너뛰고 (끓고) 빈 책가방을 어깨에 걸치고서 집을 나섰다. 풀~풀~ 한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학교로 가는 도중에 발길은 버스 정류장에서 멈췄다. 불도저로 밀어 놓은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툭툭털 시동이 꺼질듯이 앓는 소리를 내며 승객을 기다리는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기사 아저씨가 타고 성예를 댕자 버스는 곧 출발할 것같았다. 문득 나는 「저 중생 (버스)구제 해주는 셈치고 오대산으로 한번 날아봐?」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은 벌써 월정사 입구 전나무의 설경에 가 있었다. 「그래, 하루 제끼자! 어차피 학교 가봐야 재미도 없는데…」 150원에 고물이긴 하지만 버스 주인이 된 것같은 생각에 싱긋 웃었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버스는 난폭운전으로 눈길 위에서 몸살을 앓았다. 매표소에서 내려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도로를 처벅처벅 걸었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난 산길을 무작정 걸었다. 방향을 꺾어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등에서 땀이 흘



렀다. 암자가 눈 속에 희뿌옇게 보였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온 길이라 우두커니 섰다가 암자를 힐끔 쳐다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굵이굵이 돌아 내려오다가 빈지계를 지고 올라오는 젊은 처사 한 분과 마주쳤다. 큰 산양같은 모습에 웬지 모를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다가 점심 공양을 하고 가라는 말에 나는 갑자기 시장기를 느껴 따라 올라갔다. 뻥뻥스럽게 점심 공양을 먹고 거기다가 작설차라는 차도 처음 마셔보았다. 사범고시 공부한다는 그 처사님은 마냥 여유가 있었고



월정사 동대 관음암

푸근해 보였다. 난 그런 분위기에서 나의 고민에 대한 해답도 나올 것같은 생각에 이것 저것 질문도 하고 상의도 하였다.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곁에 계시던 주지 스님께 여쭙자 「잠잘 데야 있지만 어린 니가 와서 살기엔 힘들텐데…」하셨다. 나는 결국 승낙을 얻고 집에 가서 책 보따리를 챙겼다. 그리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올릴 참쌀한 뒷박을 가지고 암자에 와서 스님들과 살게 되었다.

전기가 없어서 해만 넘어가면 한밤중이었다. 촛불과 함께 밤을 지새는 것도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으나 나중엔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만 했다. 얼마 후엔 전기가 들어왔지만 모든 게 문명세계와는 한참 떨어져 있었다.

공부 외에 내가 맡은 일은 아궁이에 불지피고 후원에서 설거지하는 것이었다. 운동 삼아 장작도 패고 심부름도 곧잘했다. 차츰 심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역시 자연과 같이 호흡하고 산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해가 바뀌고서는 삭발도 하였다. 출가는 안했지만 새로운 각오로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이따금 밤을 새우다 새벽에 목탁이 울리면 스님이 된 듯한 착각도 여러 번 했다. 출가자의 삶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지만 삶 자체가 수행이며 구도인 것을 체험하며, 나는 불교 학생회를 3년간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2월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교문을 나설 때는 이유도 없이 서러웠다. 사회인으로 한발 더 다가섰지만 정신연령은 아직 어린애였다. 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이 컸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첫번째 도전은 박살이 났고, 두번째도 그랬다. 1년 가까운 암자생활을 마치고 이듬해 봄에 산골 오지로 가서 임시직이지만 벼슬살이를 하며 살게 되었다. 분교에 학생은 여덟 명, 가구 수도 열 집 안팎이었다. 밤마다 그네들이 들려

주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1년을 살았다. 사실 암자에 대한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다. 이따금 주지스님께 형식적인 편지를 쓰는 게 고작이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모처럼 마음먹고 암자를 찾았지만 스님께서는 벌써 먼 곳으로 공부하러 가신 뒤였다.

그때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해서

한동안은 길을 가다 스님들만 봐

도 죄인마냥 고개를 숙였다. 스

님께서도 나에 대한 존재를

잊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

각이 들기도 했다.

그 후 시장에서 나물꾸

러미를 양손에 들고 야채

를 고르시는 스님을 만났

다. 가까운 식당에 가서

공양을 하며 그간 이야기

를 나누었다. 그 처사님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지금

연수 중이며, 당신께선 조

그마한 사찰 주지소임을 맡

게 되었다고 하셨다. 지금 뭐

하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놀니

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같이 살자

고 하셨다가 내가 거짓말 한 줄 아시

고는 생활에 충실하라고 하셨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벚꽃이 화사한 ○○사에는 입구부터 눈이 부셨다. 일주일 휴가를 내고 왔지만 사실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 나를 옛날처럼 받아주시겠지 하고 마음을 둘 곳을 찾아서 현실에서 도피한 것이다. 스님은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에 「술에 찼었구나, 찼었어. 쫓쫓... 초파일 행사도 있고한데 바쁜 때 잘 와주었다。」 하시

며 다른 곳 갈 생각 말고 여기서 살라고 하셨다.

초파일을 지내고 삭발하여 나의 행자 생활은 시작했다. 속세의 습관을 못버려 스님께서 장기간 출타하시면 몰래 소주도 훌쩍거렸다. 물론 혼도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똥오줌 못가리고 살았던

나날이었다. 잡초 뽑으라면 제초제를 사

다 뿌리고, 멀쩡한 나무나 베고 동

네 학생들 오토바이 빌려 타고

장에 가다 순경한테 딱지 끊기

고, 행자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었으랴.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절에 사는 마구니

였다. 스님의 자비심이 아

니었던들 어떻게 오늘

이런 글을 쓰며 지난날

을 회고할 수 있으랴.

이제 강원도 골짜에서

이곳 송광사까지 와서

살게 되었으니 나는 진짜

로 복받은 놈이 아닌가 싶

다. 강원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 놓지 못하시고 못난 중

생을 위해 맘고생하신 주지스

님을 생각하면, 그동안 너무나 무

지했고 이기적으로 살아 왔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 수행인으로서 위의와 계율

을 지키며 본분사를 잊지 않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는 마음으로 여법하게 살 것을 다짐한다. 이 글

을 빌어 막행막식으로 살아온 날들을 삼보전에 참

회하고, 무심으로 거두워주신 은사스님께 다시 한

번 일념으로 감사를 올린다.

청복(淸福)

도선/사집

5월 20일

새벽에 내리던 보슬비가 아침이 되니
 굵은 빗줄기로 변해 조계산 일대를 흠
 뻑 적시고 있다. 계곡의 물소리도 점점
 불어만 가고 더욱 높아만 간다. 얼마전
 에 새로이 집을 지어 신혼 살림을 차
 린 제비네 부부는 오늘은 왠지 조용하
 기만 하다. 모처럼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웠던 유년시절을 떠올
 리고 있는 것일까? 집에서 기르는 가
 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이나 날짐
 승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무서워 하
 고 경계하는데도 제비들만큼은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처마 밑으로 찾아들어
 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과
 숙세의 인연이 깊은가 보다.

제비와의 인연이 그렇듯이 봄 하늘에 한가로이
 떠가는 저 구름에서부터 매일 먹는 귀중한 공양물
 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나와 무연한 것이 없
 건만 오직 내 잘났다는 생각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
 지는 않은지?

모처럼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빗소리는 마음까
 지 편안하고 푸근하게 해주는 것 같다. 들떠 있거나



경직된 마음까지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해주는 저
 빗소리는 우리들의 삶을 조용히 성찰하게 해주는
 자비의 화신이 아닐까? 어린 새끼들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와 먹여주는 제비들처럼 그렇게 온 정
 성을 다해 길러주었던 일흔이 넘은 시골 노모의 소
 식이 오늘은 몹시도 그립다. 만나고 헤어지는 이
 세연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을 옛 수행자들은 무엇
 으로 달래며 이겨나갔을까?

바깥엔 빗소리가 온 숲을 울리고 있다.

5월 23일

비개인 뒷 날 조계산의 신록이 눈부시도록 푸르다. 아침마다 푸른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안개를 보거나 계곡의 맑은 물에 세수를 하면서 이 청정한 도량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청복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 바라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보살의 길을 걷고자 서원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밤이 깊도록 배갯잇을 흥건히 적시며 삶에 대해서 고뇌해 보고

좋아하는 대상은 늘 가까이하려 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멀리하려는 마음은 일지 않는가? 진정 오온이 다 공하다고 하는데 난 그 공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쯤되면 공부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5월 27일

지난 겨울 그렇게 황량했던 숲속의 나뭇잎들이 무성할대로 무성해져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도량에 매화꽃이 피고 수선화가 꽃망울을 터트

린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초여름에 접어든 듯 한낮의 햇살이 따갑게 느껴진다. 도량의 여기저기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 초여름을 느끼게 해준다. 아랫마을의 보리밭에는 어린아이의 키만큼 자라버린 보리들이 오뉴월의 햇살에 익어만 가고 일모작 논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노동은 우리들의 삶을 값있고 진실하게 해주는데, 산문에 들어와서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느라 휴과 더불어 몸소 굵은 땀방울을 흘려보지 못했다. 언젠가 공부가 익어지고 삶에 수순하여 마음에거친 물결이

일지 않을 때면 나도 손수 흙을 일구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살고 싶다.

활짝 열어둔 큰방 문으로 오뉴월의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멀리 산골 농부의 이마에 묻은 땀방울을 식혀주면서 불어오는 고마운 바람이리라.

여름이 시작되려나 보다.

아파해 보아야 한다던 저 무애범우와 더불어 이렇게 맑고 푸른 5월에 청산을 바라보며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저 산문 밖 저자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정진하고 있을 무애범우 못지 않게 나의 공부도 좀 더 깊어지고 익어갔으면 좋겠다. 산문에 들어와서 나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예불하고 참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만큼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와져 가고 있는가?

삼십센티 의자

노휴/사교

“**절**에 다녀요, 안다녀요?”
“...”

“왜 대답 안해요? 무종교 아니면 ...”

“교회 다녀요!”

“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려웠는데 그때 목사님이 도와 주셨대요. 그래서...”

학생회를 맡다보니 입버릇처럼 처음 보는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절에 안다니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절에 나오도록 하는게 나의 성격인데, 이 학생에게만은 은혜를 저버리면서까지 절에 다니라고 강요할 수가 없었다. 학생회를 맡은 지 6개월 쯤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전부터 소년소녀 가장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순천시청 가정복지과를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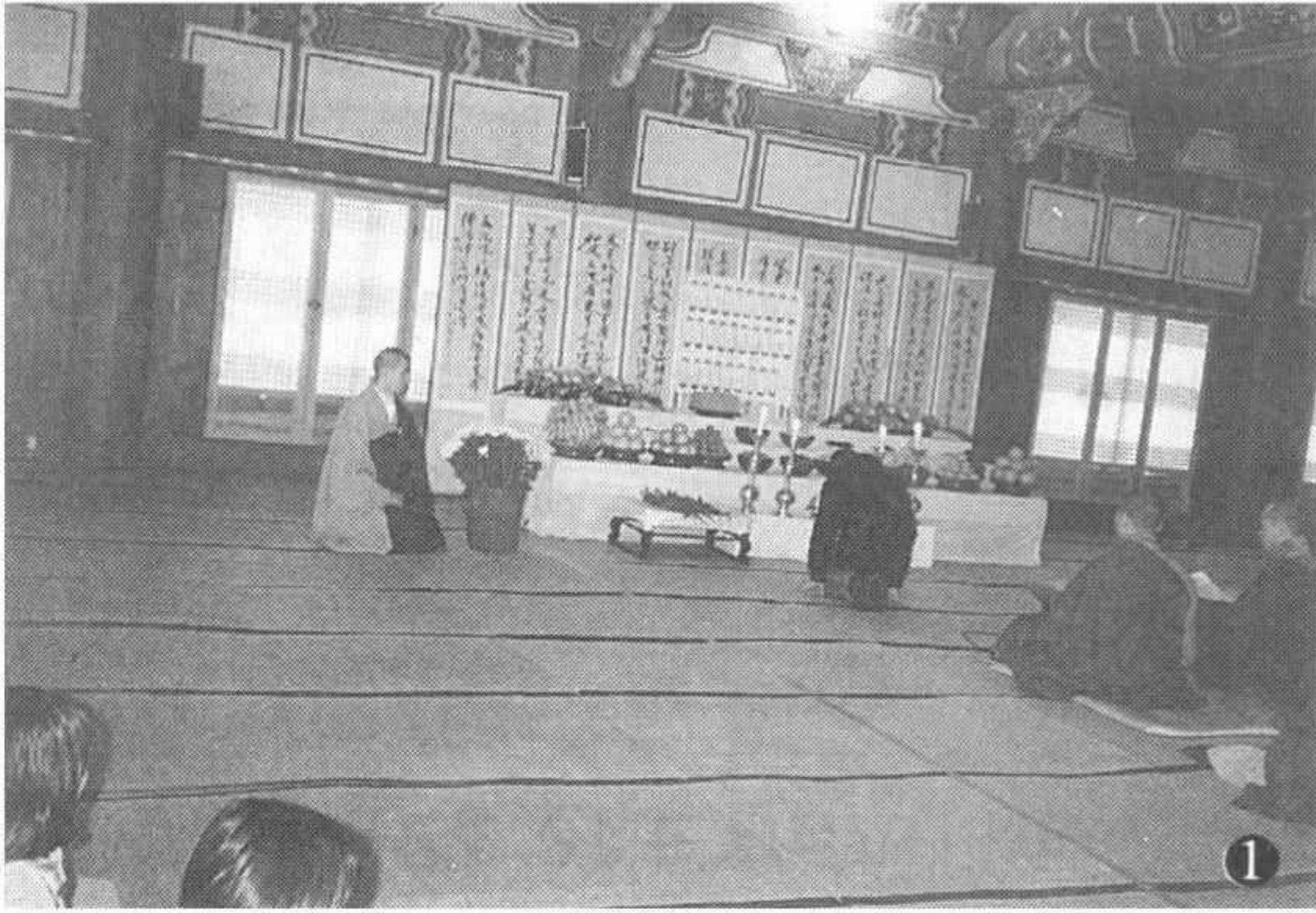
하였다. 담당직원인 박정숙(아이들은 박여사라고 부름)씨는 스님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명단을 건네 주었다.

30세대 69명(올해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72세대 139명으로 증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소년소녀 가장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순천시가 이 정도이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소년소녀 가장이 있을지 상상이 안갔다. 발생사유는 대부분이 어머니는 가

출, 아버지는 병사였다. 박여사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게 중요하니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끔씩 형처럼 충고도 해주라고 하였다. 나와 인연을 맺게 된 소년가장은,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가출하였고 아버지는 청소부였는데, 작년 4월에 두 아들을 남기고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 현재 두 형제는 연로하신 고모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을 돕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박여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다과회를 송광사에서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강원 대중과종무소 후원으로 2월3일 다과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풀어주기 위해 합



- ① 합동 천도재
- ② 송광사 안내
- ③ 순천 시청 소년소녀가장 담당 직원
- ④ 선물 증정

동 천도재를 지내 주었다.

대교반 스님들은 동안거 해제비 전액을 내주셨고 또 강원에서는 후원회가 생겨 자신의 보시에서 매월 만원씩을 내주고 있다. 또한 첫 월급을 좋은 일에 쓰고 싶으면서 직접 찾아와 보시하신 청년회 여자법우님 등 순천 대승사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한달에 한번씩 송광사 주변에 사는 11세대를 찾아가 생필품을 전해주고 고민도 나누고 있다.

화장실이 없는 소년가장, 장판을 십 년 넘게 사용하여 장판이

삭아버린 소녀가장, 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서 산업체학교로 공부하러간 소녀가장, 냉장고가 없어 음식물에 구더기가 생겨서 버려야 했던 소년가장, 4형제 중 두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고서 하루빨리 한집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소년가장 등...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중생(衆生)이 아프면 보살(菩薩)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거리낌없이 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몇 만원

이 없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시주물을 쉽게 사용하고 시내에 나갔을 때 먹을 것 없다고 투정하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달 전에 나를 더욱 부끄럽게 하는 편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봉암사 스님에게서 왔다. 해청당에 실려 있는 강원 화보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 부모님

천도재 행사사진을 보고 '해청당' 통장으로 작은 정성이라며 50만원을 송금하셨다. 학생회 일 때문에 그동안 종지스님(사집반)에게 부탁하고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런 나에게 보내다니... 그 스님의 편지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여름에는 수련회, 겨울에는 부모님 천도재를 지내주며, 학기초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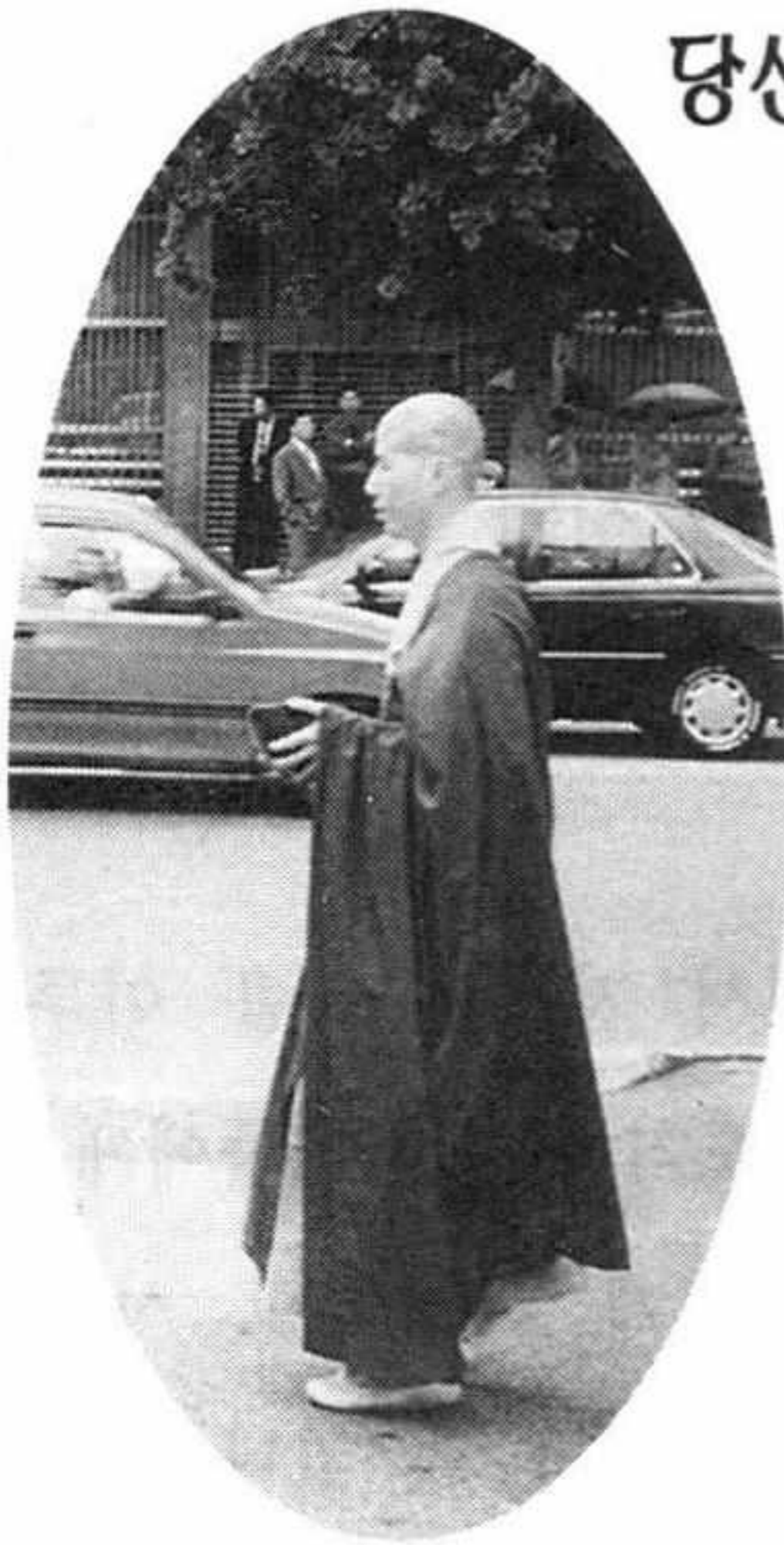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法)보다 밥이 우선일 것이다. 대부분의 소년소녀 가정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자기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따르는 게 인간의 양심일 것이다. 이들에게 불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키가 150cm인 사람과 180cm인 사람이 2m인 철봉잡기 시합을 할 때 똑같은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라면 아마 150cm인 사

람에게는 30cm 높이의 의자를 줄 것이다. 몇 만원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 업(業)이라고만 가르칠 게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자비일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소년소녀 가정에게 관심을 갖고서, 미력하나마 힘닿는대로 이들에게 30cm 의자노릇을 하고 싶을 따름이다.

작은 정성 큰 기쁨!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창 응석을 부리고 꿈을 키울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정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무게를 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으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3490 - 0043410 - 11

(예금주 : 소년소녀)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541-930)

송광사 강원 내 노휴스님

Tel.(0661)53-2133

주위에 도와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스님(가운데)의 생전시 모습

雲惺昇熙 대강백 입적

송 광사 전 강주이셨던 운성스님이 지난 5월 6일 세수 86, 법랍 68세로 입적하셨다. 스님은 1910년 경기도 강화군에서 태어나, 1928년 서울 대원암에서 映湖鼎鎬(朴漢永)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셨다. 불교전문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漢永강백에게서 전강하여 범어사(8년), 범주사(9년), 송광사(11년) 강주 등을 지내시며 수많은 후학을 지도하셨다.

전강제자로는 至晤, 智雲, 一歸, 正和, 圓珣스님 등이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지운/강주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目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 (1)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1) 법(因의 힘)은 깨침의 법칙이다

법은 因의 힘이다

법에 의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흔히 爲法忘軀하거나 법을 구하기 위해서 善知識에게 布施한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있다.¹⁾ 이는 깨달음이 법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함을 말한다.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하는 것은 '因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因의 힘'이라고 한 것은 因은 果를 출생시

키기 때문에 因자체가 힘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설령 因에 의한 果라고 하더라도 이 果도 또한 因의 힘을 가진다. 비유를 들자면 복숭아 나무에 열린 복숭아는 果이다. 그러나 이 복숭아는 열매이면서 땅에 심어서 가꾸면 복숭아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 다시 복숭아가 열리게 된다. 이때 땅에 심은 복숭아는 분명 果實로서 果이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하는 因이다. 그러므로 果도 因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因의 힘을 가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1). "或爲法故施諸菩薩及善知識名聞法師"(高麗大藏經 木版本 八十華嚴經卷第二十六 十迴向品第二十五之四 第十二幅 前面)

있다. 모든 존재라는 것은 물질이든 善惡의 윤리적이든 언어문자이든 생각이든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모든 존재가 각기 因의 힘이 서로 상호 작용할 때 그를 緣이라고 한다. 법과 깨침의 관계도 緣이다. 비와 나무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비가 因이라면 자라는 나무는 果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자라는 조건이 비만이 아니다. 흙·온도·기후 등의 여러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때 비를 緣이라고 한다. 즉, 비의 입장에서는 인이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연이다. 그러므로 나무와 비의 관계는 因緣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因이나 緣은 똑 같이 果를 출생시키는 원인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연이 되면 전혀 다른 존재를 출생시키는 데 이를 緣起라고 하고, 이 다른 존재의 출생은 또 다른 존재와 緣이 되어 다른 존재를 출생시킨다. 출생시키는 인의 힘이란 무실체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체가 없으므로 다른 것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것과 평등한 관계(緣)를 맺을 수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형상을 연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생명의 활동이 아닐 수 없다.

또 무실체는 유도 무도 없기 때문에 始와 終을 세울 수 없는 中道이고 無始時來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끝없이 전개되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이 즉,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無有定法’ 그대로 重重無盡法界라고 하고, 無障無碍法界라고 하며, ‘無始時來의 界’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무시시래의 계는 연기이고 연기의 다른 이름은 법이다.

이렇게 ‘因의 힘’을 가진 법은 여러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즉, 緣起,²⁾ 緣已生法,³⁾ 相依性,⁴⁾ 法界,⁵⁾ 十二緣起,⁶⁾ 因緣,⁷⁾ 中道,⁸⁾ 空,⁹⁾ 無常,¹⁰⁾ 無我,¹¹⁾ 如(眞如)¹²⁾ 등으로 모두 이름은 법을 지칭한 말이다. 말하자면

1) 因은 因으로서 실체성을 고수하지 않고, 반드시 果를 출생시킨다. 果는 緣已生法이다. 緣已生法은 因의 결과로서의 법이다. 그리고 《中阿含 象跡喻經》에 「만일 緣起를 보면 곧 法을 보고, 法을 보면 곧 緣起를 본다」¹³⁾라고 하듯이 法은 緣起이다.

2) 모든 존재가 연기한다는 것은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이 되는 평등한 관계이므로 가능하다. 진달래가 봄바람의 緣을 만나면 꽃을 피우듯이,

3) 또 이 緣(因)은 실체성이 없으므로 그것은 無自性空이고,

4)空하므로 일체 모든 존재의 차별적 형상의 본질은 공통적으로 寂滅하며 同一한 實相으로 不變하여 眞如이다.¹⁴⁾

2). 《相應部經典》 제12의 ‘인연상응’제20경 ‘緣’ (S.N. vol. II, p.25)(남전대장경 제13권 p. 36)

3). 上同

4). 上同

5). 《잡아함경》 제12(299) (大正藏 제2권 p. 85中)

6). 上同

7). 《雜阿含經》卷第二(53) (大正藏 第二卷 p.p.12下—13上)

8). 《雜阿含經》卷第十三(302) (上同 p.86上中)

9). 《雜阿含經》卷第三(80) (上同 p.20上中)

10). 《雜阿含經》卷第一(11, 12) (上同 p.2上中)

11). 《雜阿含經》卷第二(34)에는 五蘊은 無我라고 설하고 있다.(上同 p.7下上) 그러나 《中阿含 象跡喻經》은 “만일 緣起를 보면 곧 法을 보고, 法을 보면 곧 緣起를 본다. 왜냐하면 諸賢이여 세존께서는 五盛陰(陰은 舊譯이고 新譯은 蘊이다)은 因緣으로 부터 생긴다고 說하십니다.”(大正藏 第一卷 p.467上)

12). 《雜阿含經》卷第十二(296) (上同 p.84中下)

13). 『若見緣起便見法 若見法便見緣起』 大正藏 第一卷 p.467上

14). 《八十華嚴經》卷第三十 十迴向品第二十五之八 “觀諸法性 皆悉寂滅 了一切法 同一實相” (高麗大藏經 木版本 第五幅後面 ~六幅前面)

5) 眞如의 모습은 無差別 平等이다. 화엄경에 “중생이든 부처든 마음이든 차별이 없다”고 설하듯이 존재의 차별적 형상은 이렇게 평등한 一性이다.

6) 이러한 平等一性의 모습은 끊어짐(斷)도 항상함(常)도 없는 無始無終이고, 無限無量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는 斷常二見으로 분별할 수 없는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경지에 가야 비로소 나타난다.

7) 《華嚴經》十廻向品第二十五之五에 “모든 존재는 緣을 따라 실체가 없다”¹⁵⁾라고 설하고 있듯이, 실체가 없으므로 서로 간에 緣하여 존재는 상호의존할 수 밖에 없어 假로서 차별의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는 緣起는 꿈과 같고 幻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이, 전존재 전우주는 공옥진보살의 춤과 같이 춤을 추고 있다.

8) 그러므로 형상이나 현상은 無常할 수 밖에 없다.

9) 또 이렇게 無常性은 有도 無로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中道이고

10) 또 여기에 고정된 자아가 없으므로 無我이다.

11) 상호의존적이므로 전체없는 부분만이 존재할 수 없고 부분없는 전체로서만 존재하지 못하니 一即多 多即一이다.

12) 그러므로 상대적인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니, 無始時來가 법의 성격이요, 無障無碍의 法界가 아닐수 없다.

13) 이렇게 무장무애한 법은 서로 간에 因(緣)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법의 因(緣)이 깨침의 果를 가져오는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華嚴經》十廻向品第二十五之六에 이르기를 “깨달음의 성품이 緣으로부터 일어남을 알면 깊은

법계에 들어감에 거슬리거나 어긋남이 없다”¹⁶⁾라고 설하듯이, 향엄스님이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맞는 소리를 듣고 깨치듯이 因緣을 떠난 깨달음은 없다.

깨달음도 법 밖에 있지 않다

법에 의해서 깨달아도 법과 깨달은 당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깨달음은 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다. 깨달은 당사자도 바로 법이다.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법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음을 명확히 알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雜阿含 尊重經>에서 梵天王이 노래하기를,

『과거의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께서서는 중생들의 근심을 제거해 주시네, 이 三世의 모든 부처님은 법을 공경하여 正法을 의지해 安住하시나니 이와 같이 법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法이시네.』¹⁷⁾

라고 하여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의 의지처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正法」에 안주함을 말한다. 또한 <相應部 經典> 22:87에서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리라』¹⁸⁾라고 하여 부처란 연기법을 깨달은 이임을 나타내고 동시에 법임을 말하고 있다.

법과 깨침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법은 인의 힘이므로 깨침의 결과를 가져온다. 완전한 깨침은 바로

15). 《八十華嚴經》卷第二十七 “諸法從緣無體” (高麗大藏經 木版本 第十幅前面)

16). 《八十華嚴經》卷第二十八 “知菩提性從緣起 入深法界無違逆” (高麗大藏經 木版本 第二十三幅後面)

17). 『過去等正覺 及未來諸佛 現在佛世尊 能除衆生憂 一切恭敬法 依正法而住 如是恭敬者 是則諸佛法』大正藏第二卷 p.322 上

18). 마쓰다니후미오 / 이원섭 옮김(1991년) 「아함경 이야기」 현암사 p.53

중생에서 전환된 부처로서의 fruit이다. 즉 佛果라고 한다. 그러나 부처는 다시 중생을 교화인도하는 因이 되는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는 인의 힘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佛을 형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들으면 깨닫는다고 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도 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

깨칠 수 있는 법칙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에 의하여 깨닫는다면 그 깨침이 곧 법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깨달음의 법칙과 연결되는 것으로 《般若心經》에 “照見五蘊皆空”이라고 하고, 《頓悟入道要門論》에 “頓者頓除妄念 悟者悟無所得”이라고 하여 깨달음의 내용이 無自性空이고, 無所得으로 법과 같은 본질임을 말한다. 무소득의 의미는 모든 존재가 공통적으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으로 일체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존재가 색깔이나 크기 넓이 모양새 등 갖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무소득 空임을 부인할 수 없 역설적으로 각기 다른 차별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곧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불평등 차별의 모습이나 그 본질은 무소득 일체 평등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근거이다. 부처와 중생과의 관계가 불평등이라면 중생의 입장에서 아무리 노력 정진하여도 부처는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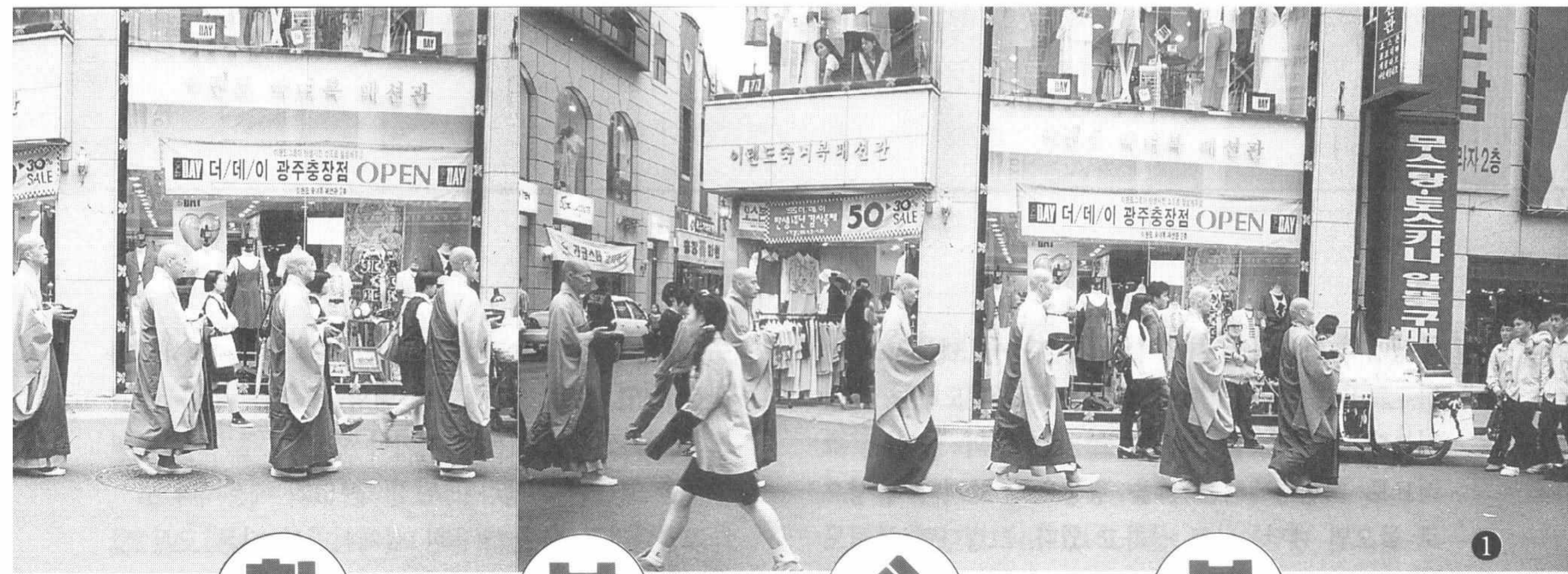
그러므로 깨침도 법의 속성이므로 깨침과 법의 관계가 緣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緣은 곧 무차별 평등한 因과 果의 끈이다. 이것이 깨침의 법칙이요 본질이다. 이 문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만일 모든 존재가 絕對的 他者인 神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해 진다면 神은 존재를 창조할 因의 힘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타자로서의 神이라면 그것은 독립

된 것이고 不變의 實體라면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다른 어떤 것과 연관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 만들고 다른 것과 연계를 가지거나 영향을 주거나한다면 그것은 고유한 실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神은 고유한 실체이면서 다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인의 힘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이 인의 힘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인의 힘에 의하여 자신이 교화감화되더라도 자신은 신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신은 불변의 실체로서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신 이외의 모든 존재는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만들어진 것은 고유한 불멸의 본질이 없으므로 언젠가는 파괴되고 만다.

그러므로 절대불변의 신과 신외의 실체가 없는 모든 존재와는 불평등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중생과 부처와의 無差別 平等한 緣로서의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러한 입장이라면 깨달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굳이 신과 인간과의 불평등 관계를 깨달음으로 본다면 이는 단지 신앙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깨침을 바랄 수 없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이 平等一性을 근거한다면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神만이 아니라 어떠한 絕對的 他者를 설정하여 대치하더라도 고유의 독립된 실체성을 부여한다면 불평등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인 緣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깨침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불교의 깨달음은 어디까지나 일체 평등을 전제로 한다. 존재의 본질이 無自性空임을 깨닫는 것이고, 이 깨달음은 思想이나 哲學 등의 학문과 종교 교리등 어떠한 것도 前提하지 않는 것이 禪修行의 특징이다.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은 법과 법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과의 관계(緣)가 평등해야 됨을 말한다. 수행자도 바로 법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법이 平等一性이므로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화

보

사

본



4. 29 : 부안 능가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내소사와 월명암에 들러 참배하고 돌아오는길에 채석강도 구경했습니다.(② ③)

5. 1-5. 12 : 산철 방학.
5. 6 : 운성스님입적. 강원학인 스님들 선운사에서 영결식 및 다비 참가(④)
5. 7 : 부처님 오신날.

5. 13 : 광주에서 탁발을 했습니다. 이날 모인 탁발금과 강원 및 강원기금을 광주불교방송을 통해 대구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①)



강

원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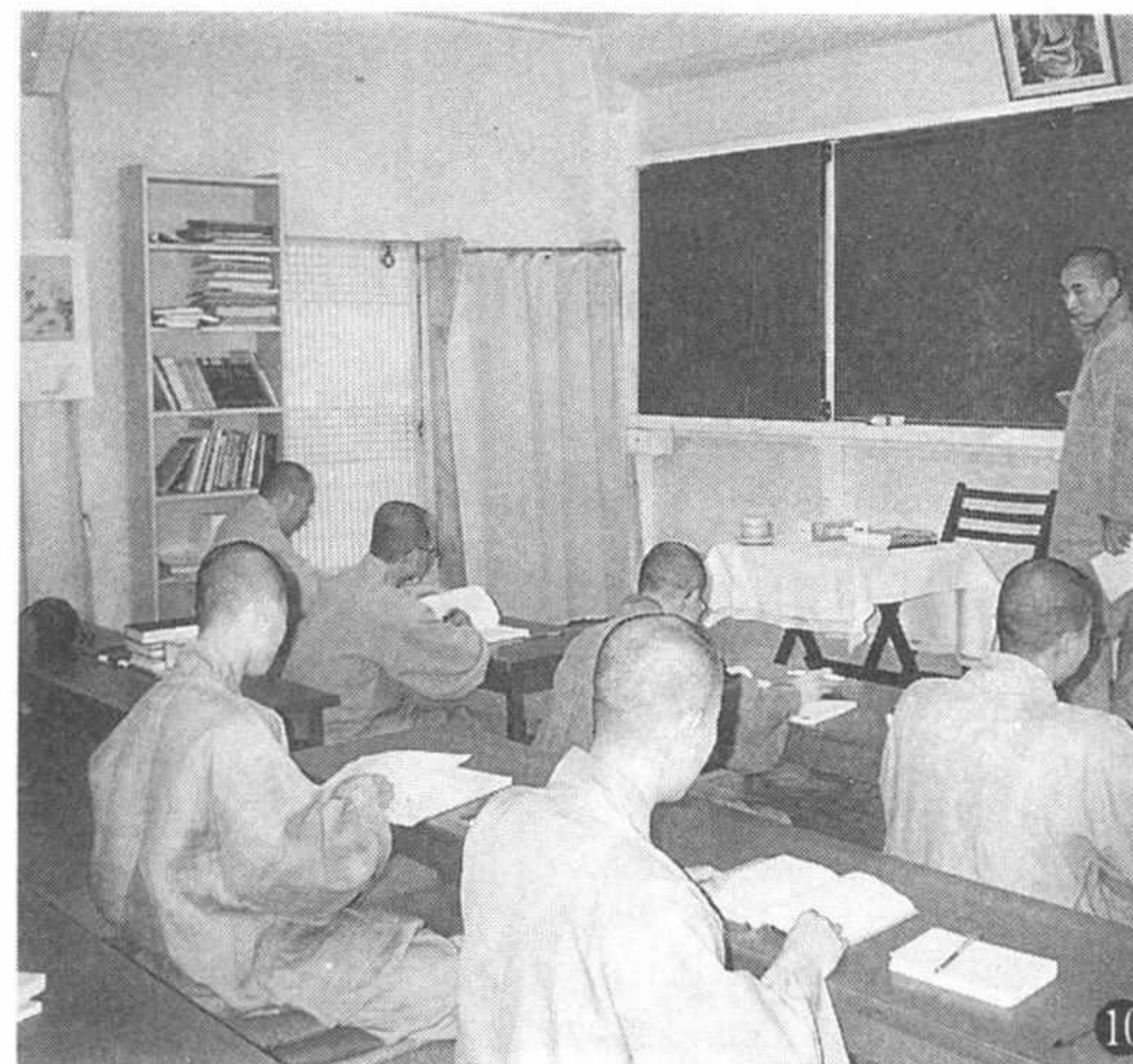
7



8



9



10

5. 14 : 하안거 결제일. (⑤)
6. 22 : 대웅전 앞마당에서 순천소방서의 지도로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⑦ ⑧)

6. 23 : 선운사에서 거행된 운성 대강백의 49재에 강원 전대중이 참여하여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6. 30 : 반결제를 맞아 조계산에 산행했습니다. 선암사에서 점심공양을 하고, 팔영산 능가사와 내발해수욕장을 둘러보았습니다. (⑫ ⑬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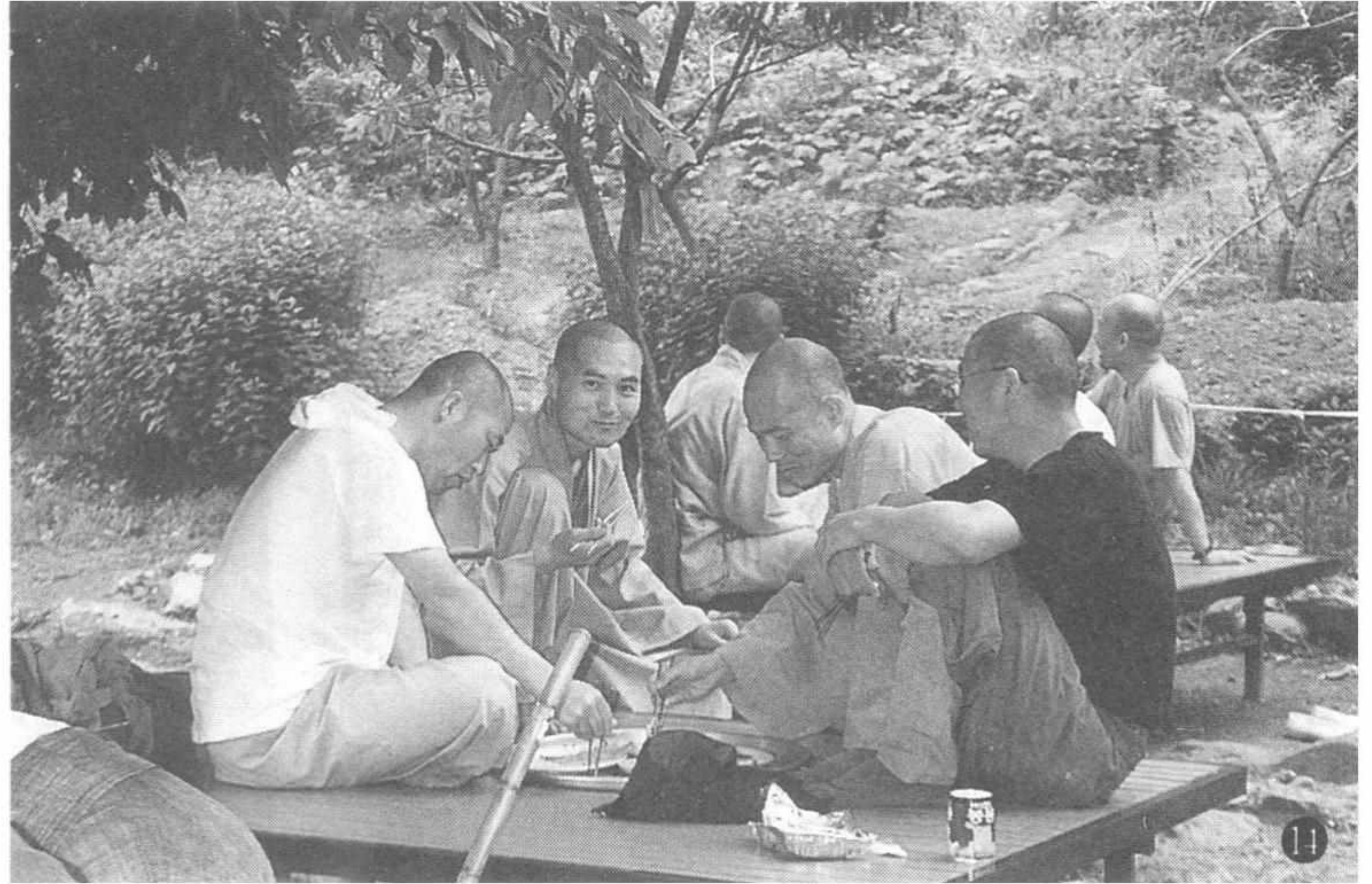
11



12



13



14



15



16

7. 1 : 선방 강원등 전 대중이 사중 뒷밭에서 감자캐기 운력을 했습니다. (15 16)

◆ 사교반에 광인스님, 사집반에 원종 스님, 치문반에 보안, 묘산, 정효, 마공, 정원, 정본, 보철, 승석스님이 새로 방부를 드렸습니다.

기획 : 원전번역

「해청당」에서는 강원 학인의 실력과 신심고취를 위하여 원전 번역의 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온전하게 다듬어지지 않는 점들도 있을 터이나 계속하여보면 일정한 수준에 이를 것이고 그 성과도 솔창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난에서는 독창적이고 발전적인 주제를 설정하는 등 내실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편집자 -

- ◎ 증시랑에게 보내는 여섯 번째 편지 역/영경(사집)
- 大慧普覺禪師語錄 第 26 卷(書狀)
- ◎ 一韻에서 十韻까지 금성 경사록의 시에 次韻함 역/회일(사교)
- 無衣子 詩集
- ◎ 위산경책 역/한복(치문)
- 緇門(滌山大圓禪師警策)

증시랑에게 답하는 여섯 번째 편지

역 : 영경/사집

來書細讀數過足見辨鐵石心立決定志不肯草
草但只如此崖到臘月三十日亦能與闍家老子
抵更休說豁開頂門眼握金剛王寶劍坐毗盧頂
上也某嘗謂方外道友曰今時學道之士只求速
效不知錯了也却謂無事省緣靜坐體究爲空過
時光不如看幾卷經念幾聲佛佛前多禮幾拜懺
悔平生所作底罪過要免闍家老子手中鐵棒此
是愚人所爲而今道家者流全以妄想心想日精
月華吞霞服氣尙能留形住世不被寒暑所逼況
回此心此念全在般若中耶先聖明明有言喻如
太末蟲處處能泊唯不能泊於火之上衆生亦爾
處處能緣唯不能緣於般若之上苟念念不退初
心把自家心識緣世間塵勞底回來抵在般若上
雖今生打未徹臨命終時定不爲惡業所牽流落
惡道來生出頭隨我今生願力定在般若中現成
受用此是決定底事無可疑者衆生界中事不着
學無始時來習得熟路頭亦熟自然取之左右逢
其原須着撥置出世間學般若心無始時來背違
乍聞知識說着自然理會不得須着立決定志與
之作頭抵決不兩立此處若入得深彼處不着排
遣諸魔外道自然竄伏矣生處放教熟熟處放教
生政爲此也日用做工夫處捉著把柄漸覺省力
時便是得力處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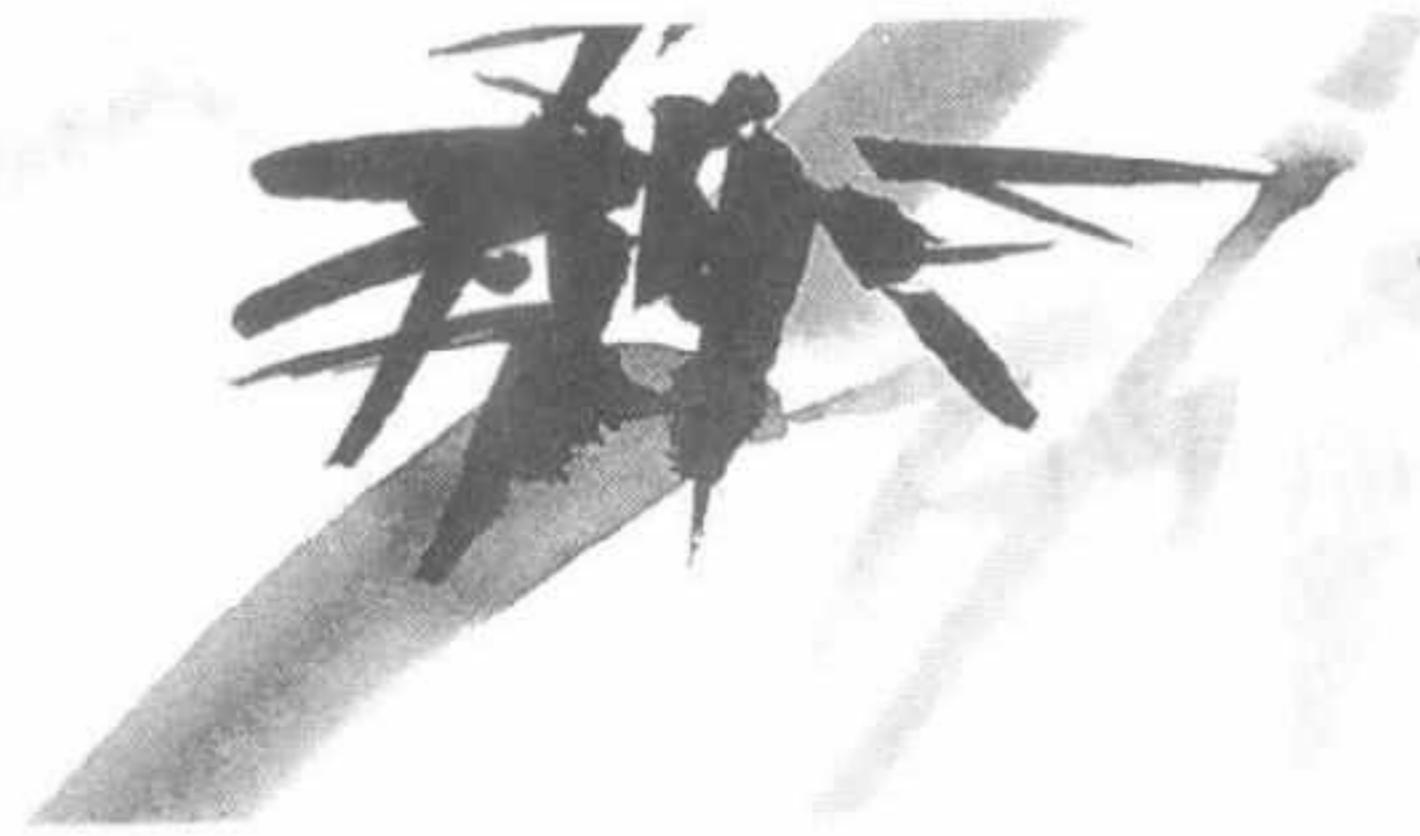
보 내 주신 편지를 여러 번 자세히 읽고, 철석
같은 마음으로 결정적인 뜻을 세워 대충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단지 이와 같이 애써서 공부하여 臨終을 맞이 한
다면 염라대왕과 한번 겨루어 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정문안(頂門眼)¹⁾을 연다느니, 금강
왕보검(金剛王寶劍)²⁾을 잡고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마 위에 앉는다느니 하는 말은 마십시오.

제가 일찍이 출가자³⁾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단지 빠른 효과만을
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릅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일없이 인연을 털어서 고요히 앉아 자세
히 궁구한다 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경을 몇 권 보거나 염불을 좀 하거나 부처님 앞에
절이라도 많이 해서 평생에 지은 죄를 참회하여 염
라대왕 손에 있는 철봉을 피하는 것이 더 낫지 않
느냐’ 하니,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
다」

요즘 도가(道家)의 무리가 완전히 망상심으로 태
양의 정기(情氣)와 달빛을 생각하고 노을을 삼키고
기를 마실지라도 육체를 보존하여 세상에 머무르면
서 추위와 더위의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하는데 하물
며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반야 가운데 두는 경
우에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옛 성인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파리



가 곳곳에 다 머무르되 오직 불꽃 위에서만은 머물지 못한다. 중생도 또한 그렇습니다. 곳곳에 인연을 지을 수 있어도 오직 반야에서만은 인연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순간순간에 처음 마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세간의 번뇌에 꼬달려가는 자기 마음을 반야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목숨이 다할 때에 반드시 악업에 끌려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생에 태어나서는 반야 가운데에 있고 자 하는 금생의 원력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⁴⁾.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의심할 게 없습니다.

중생계 가운데 일은 배우지 않아도 無始以來 익혀

서 익어졌으며, 세간사의 길도 익숙하여 자연히 취하더라도 좌우에서 그 근원을 만나리니⁵⁾ 반드시 내버려 두십시오. 세간을 벗어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無始以來로 등져왔기 때문에 잠깐 선지식의 말을 듣고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결정적인 뜻을 세워 세간사와 겨루어서 결코 반야와 세간 양쪽에 서지 마십시오. 이곳에 깊이 들어가면 저곳은 물리치지 않아도 모든 마군 외도가 자연히 물러날 것입니다.

선 곳(生處)은 익게 하고⁶⁾ 익은 곳(熟處)은 설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상에 공부하는데 칼자루⁷⁾를 잡아 점점 힘 덜림을 느낄 때가 바로 힘 얻는 곳입니다.

주해

- 1). 頂門眼 : [梵語 mahesvara] 마헤수라천(시바신)에 세 개의 눈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눈 외에 정수리에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 이 눈으로 일체의 이치를 환하게 비쳐 안다고 한다.
- 2). 金剛王寶劍 : 臨濟四喝의 하나.
임제 선사가 따로 一喝하여 일체의 분별 망상을 절단하는 것을 예리한 검에 비유한 말이다.
- 3). 方外 : 方은 세속적인 道, 外는 출세간의 道, 합하여 佛道.
- 4). 現成 : 現成成就의 뜻
위 문장은 보통 ... 願力, 定在般若中現成受用の 상태에서 두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금생의 원력에 따라 반야 가운데에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 즉 태어나 수용은 이를 것이다. 둘째는 반야 가운데서 지금 이룬 그대로를 얻게 될 것이다.
위 번역에서는 비슷한 내용 여거인에게 답한 편지에

- 서 '隨我 --- 般若中'이 생략된 문장 '來生出頭 現成隨用'에 착안해서 '隨我 --- 般若中'을 한 묶음으로 해석해 보았다. '現成隨用' 부분에서는, 내생의 '그때 그때 삶 속의 현재'를 부각시켜 지금 순간 순간의 初心에서 물러나지 않고, 내생의 순간 순간에도 모든 것은 成就 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사상 그 자체로 返照할수 있다는 것이다.
- 5). 左右逢原 : 맹자 離婁下 구절에서 나온 말로써 어디에서도 事의 본질을 알아 차린다는 뜻이다. 불교적으로는 大道를 得하면 日常의 모든 일이 佛作佛行이며, 일거일동이 조금도 대도의 本原에서 여의지 않는 것을 말한다.(선학대사전)
- 6). 放教熟 : 전통적으로는放을 生處에 연결시켜 '선 곳을 놓아 하여금 익게하고' 라고 새기나 放高(높게 하다)와 같이 熟의 동작을 보조하는 의미로 보았고, 사역동사 教와 합쳐져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띄게 된다고 생각되어 진다.
- 7). 把柄 : 본뜻은 손잡이, 자루이며 추상화되어 요점, 급소, 단서의 의미를 가진다.

一韻에서 十韻까지 금성 경사록의 시에 次韻함

역 : 회일/사교

人 人
 隨業 受身
 苦樂果 善惡因
 不循邪妄 常行正眞
 糝糠兮富貴 甲冑兮義仁
 況須參玄得眞 自然換骨清神
 體不得火風地水 心亦非緣盧垢塵
 沒縫塔中燈燃不夜 無根樹上花發恒春
 風磨白月兮誰病誰藥 雲合青山也何舊何新
 一道通方爲聖賢之所履 千車共轍故古今而同進*

사람 사람이 업에따라 몸을 받음이어 고락의 과보는 선악에 있음이니 샅되고 허
 망한 것 쫓지 말고 항상 바르고 참되게 행할지라. 부귀는 쌀겨와 같고 仁義는
 갑옷과 투구일새. 하물며 현리를 참구하여 참됨을 얻는데는 자연히 뼈가 바뀌고 정신
 이 맑아지리라. 몸은 불·바람·흙·물이 아니며, 마음 또한 번뇌에 이끌리지 않음이
 라. 기운 자국 없는 탑에 등켜 어둡지 않고, 뿌리 없는 나무에 꽃피어 항상 봄이로다.
 바람으로 흰 달을 가니 누가 병들었고 누구의 약이더냐, 구름이 청산에 자욱하니 무
 엇이 옛이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한 길이 사방으로 뚫린 것은 성현이 지난 바요,
 천 수레 같은 바퀴여서 옛이나 지금이나 함께 나아가리.

* 한국불교전서에는 道字이나 ‘進’으로 해야 한다는 이종찬교수의 견해에 따랐음.

위산경책

역 : 한복/치문

夫業繫受身未免形累稟父母之遺軀假衆緣而共成雖乃四大扶持常相違背無常老病不與人期朝存夕亡刹那異世譬如春霜曉露倏忽即無岸樹井藤豈能長久念念迅速一刹那間轉息即是來生何乃晏然空過父母不供甘旨六親固以棄離不能安國治邦家業頓捐繼嗣緬離鄉黨剃髮稟師內勤剋念之功外弘不諍之德迥脫塵世冀期出離何乃裳登戒品便言我是比丘檀越所須喫用常住不解忖思來處謂言法爾合供喫了聚頭喧喧但說人間雜話然即一期趁樂不知樂是苦因曩劫徇塵未嘗反省時光淹沒歲月蹉跎受用殷繁施利濃厚動經年載不擬棄離積聚滋多保持幻質導師有勅戒勗比丘進道嚴身三常不足人多於此貪味不休日往月來颯然白首後學未聞旨趣應須博問先知將謂出家貴求衣食佛先制律啓創發蒙軌則威儀淨如冰雪止持作犯束斂初心微細條章革諸猥弊毘尼法席曾未叨陪了義上乘豈能甄別可惜一生空過後悔難追教理未嘗措懷玄道無因契悟及至年高臘長空腹高心不肯親附良朋惟知倨傲未諳法律戢斂全無或大語高聲出言無度不敬上中下座婆羅門聚會無殊椀鉢作聲食畢先起去就乖角僧體全無起坐恣諸動他心念不存些些軌則小小威儀將何束斂後昆新學無因倣倣纔相覺察便言我是山僧未聞佛教行持一向情存麤糙如

업 때문에 생긴 우리의 몸은 괴로울 수 밖에 없다. 부모로부터 받은 데다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이 몸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균형이 맞지 않아서 늙음과 병이 불시에 찾아와 아침엔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기도 한다. 우리의 목숨은 봄 서리와 새벽 이슬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언제 죽을 줄 몰라 늘 아슬아슬하다. 세월은 번개처럼 빨라서 숨만 돌리면 바로 다른 세상인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야 되겠는가?

자식 낳아 대를 잇고 부모 모시는 의무마저 팽개치고 출가하였으면 번뇌 끊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큰스님이 되고 더 나아가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겨우 계를 받고 우쭐해져서는 큰스님 시늉을 하면서 어떤 시주물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 쓰면서, 끼리끼리 모여서는 쓸데 없는 세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한때 아무런 생각없이 즐겁게 지내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줄 모르고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중생세계를 수없이 윤회하고 있으면서도 잠깐만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으며, 세월이 갈수록 시주(施主)의 빛은 늘어만 가는데 공부하여 빛값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재산만 잔뜩 긁어모아서는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있다.

이것을 우려한 부처님께서 “수행할 때 몸가짐

斯之見蓋爲初心慵惰饕餮因循荏苒人間遂成
 疎野不覺躑躅老朽觸事面墻後學咨詢無言接
 引縱有談說不涉典章或被輕言便責後生無禮
 嗔心忿起言語駭人一朝臥疾在牀衆苦縈纏逼
 迫曉夕思忖心裡惘惶前路茫茫未知何往從茲
 始知悔過臨渴掘井奚爲自恨早不預修年晚多
 諸過咎臨行揮霍怕怖惺惶穀穿雀飛識心隨業
 如人負債強者先牽心緒多端重處偏墜無常殺
 鬼念念不停命不可延時不可待人天三有應未
 免之如是受身非論劫數感傷嘆訝哀哉切心豈
 可緘言遞相警策所恨同生像季去聖時遙佛法
 生疎人多懈怠略伸管見以曉後來若不鑄矜誠
 難輪道



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부족하게 하라” 고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하셨
 으나 많은 스님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이
 렇게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 공부도 않고 늙어 버린
 다. 후배가 찾아와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여 올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할텐데 “잘먹고 잘
 살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라고 어이 없는 대답
 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부처님께
 서는 계율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시고, 성불을 발원
 한 출가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간곡
 하고 세세하게 말씀하셨으나 계율이라는 것을 들어
 보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밝은 눈을 얻어 최고의 진
 리인 대승법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안타까워라.
 일생을 헛되게 보내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젊어서 공부에 뜻을 두지 않았으니 깨닫는다는건
 꿈도 못 꿀 일이고, 나이를 먹고 승납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아만심만 잔뜩 높아져서는 공부하는 도
 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經과 律은 제대로 모르면
 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거만 뿐이며, 자신을 조
 금도 살피지 못하고, 말할 때 시끄럽기만 할 뿐 갈
 피를 잡을 수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아랫사람
 을 아낄 줄도 모르니 도대체 무얼 하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공양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고, 먹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는 등 행동이 매우 머트러워서 아무리 보아
 도 스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어수선한
 거동으로 다른 스님의 신경을 자극하여 공부를 자
 극하고 있으면서도 절제하는 모습 같은 건 조금도
 없으니 무엇이 그를 추스를 수 있을지… 갓 출가
 한 스님이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자신
 이 출가한 사람이라는 걸 겨우 깨닫게 되면 수행이

라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山僧이라는 이름만 좋아하여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山僧이라고 떠벌리지만 정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말할 수 없이 게으른 데다가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속인들과 어울려 쓸 데 없는 일만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늙은 뒤에는 해 놓은 공부가 없어서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한다.

후학이 뭔가를 물으면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설령 말을 하더라도 엉뚱한 얘기만 하면서, 이 때문에 업신여기는 소리라도 하면 화를 벌컥 내면서 “새까만 녀석이 건방지다” 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

그러다가 어느날 느닷없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별의별 망상을 다 떨어 보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두려울 뿐 앞길이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야 지난 일들을 뒤우치지만 목 마를 때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별다른 수가 없다. 젊어서 수행은 하지 않고 죄만 짓고는 늙어서 그걸

후회하지만 죽음에 임하여 몸부림쳐도 두려움 뿐이다. 그러다가 목숨을 마치면 그 영혼이 업에 매이는 것이 빚진 사람을 힘센 빚쟁이가 먼저 끌어가 는 것 같아서 영혼은 자유롭게 가고 싶어하지만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업이 무거운 곳에 떨어져 버린다. 때가 되면 죽음의 신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중생들은 도저히 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윤회하면서 몸을 받은 것이 몇 겁이나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애간장이 끊어지듯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닫고 경책의 말을 하지 않겠는가? 한스러운 것은 지금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된 말법시대이기 때문에 불법이 이 시대에 생소하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간략하게 나의 변변찮은 생각을 적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한다.

자만심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원 고 모 집

진짜 강원지 「해청당」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형식, 주제, 소재, 분량 등은 자유이고 진실하고
소박하며 재미있는 내용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이번 호부터 시도하는 원전번역 원고도 접수하오니 빛나는
필체로 佛敎의 묘리를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사 강원 스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강원 스님들도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해청당」 편집실

돌아오지 않는 월이

범능/사집

나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비슬산 자락 용문사라는 조그만 암자에서 행자 시절을 보냈다. 절 뒤 계곡엔 용문폭포라는 조그만 폭포가 있고, 가까이 저수지도 있었다. 매월 초 하루와 주말에나 사람들이 몇 명 찾아오는 한적한 곳으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마음을 쉬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산이 깊고 험해서 산짐승이 사는지 더러 사냥꾼들이 개들과 함께 나타나곤 했다. 주지스님과 나, 공양주 보살님, 송이와 달호라는 개 두마리 해서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총소리가 나고 사냥꾼이 나타나면 송이와 달호가 쫓아와 연락을 하곤 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개 두마리만으로 양이 차지 않으셨던지 진도에 가서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더 구해 오자고 하셨다. 나는 전에 진도에서 몇 년 살았던 까닭에 진도개 키우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리 연락해 놓고 함께 내려갔다. 주지스님은 개를 보는 안목이 대단하셨다. 꽤 비싼 가격을 주고 새끼 암컷을 샀는데, 그곳 주인이 나와 잘 아는 터라 덤으로 새끼



수놈도 한 마리 더 받았다. 이제 절 마당은 온통 개판이었다. 전부터 살고 있던 녀석들도 암수 한쌍으로 3년생, 2년생으로 사람으로 치자면 성숙된 개들이었다. 새로 사온 새끼들 이름은 암컷은 월이, 수컷은 돌이라고 지었다. 겨울날 햇별이 들라치면 이 개들이 햇별을 즐기며 낮

잠을 자는데, 송이는 햇별 비치는 요사채 벽에 발을 올리고 자고, 새끼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등 그야말로 개판이라 신도님들이 보고는 모두 배꼽을 잡았다. 그런데 새끼들은 자면서 꿈을 꾸는지 잠꼬대를 자주 하는데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었다.

주지스님과 나는 특히 월이와 돌이에게 정성을 많이 들였다. 3개월 정도 되었을까, 처음엔 묶어 놓고 키우다 불쌍해서 자주 풀어 주었는데 월이라는 암컷 새끼가 제법 영리하고 기질이 사나웠다. 그래서 같이 온 돌이를 다른 사람들이 귀여워하면 질투를 해서 자주 물었다. 돌이는 귀끝이 많이 물려서 털이 다 빠졌다. 월이는 점점 기질이 사나워지기 시작하면서 달호와 친해졌는데, 돌이 자주 계곡을 다녀왔다. 조금 불

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들어오니까 내버려뒀다.

도시에서는 애완용 개를 귀여워할지 몰라도 산골에서는 영리하고 기질이 사나운 녀석에게 애착을 갖게 된다. 하루는 월이를 묶어 놓고 밭일 갔다가 돌아오는데 내가 밀짚모자를 쓰고 오니 얼굴을 못 알아보고는 막 짚어댔다. 이 놈, 짚는다며 쫓아가니까 줄을 끊고서 도망가면서도 막 짚어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꼬리는 절대 내리지 않았다. 겁먹은 개는 꼬리를 내린다는데 월이는 달랐다. 내심 참으로 이 녀석은 틀이 됐구나 싶었다. 하루는 달호와 함께 외박을 하고 아침에 돌아왔는데, 눈빛이 짐승이 내는 광기를 그대로 발산했다. 아마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은 게 아닌가 싶었다. 이틀 후에 또 외박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 달호만 오고 월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애착을 가졌던 월이가 돌아오지 않자 겁많은 달호를 묶어 놓고 몇 대 때렸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다.

주지스님도 안타까우셨는지 메가폰을 가지고 산을 타면서 월이를 찾으라고 하셨다. 그 절상좌스님과 함께 온산을 헤매면서 메가폰으로 월이를 외쳐댔지

만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다. 아마 너무 어려서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았다. 그래도 안타까워서 며칠 계속 계곡에 대고 큰소리로 월이를 불러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부득이하게 개를 키우긴 했지만 지나치게

애착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사미율의에 수행자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또한 한가지 교훈을 얻은 것이 있으니,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모름지기 폭익을 때까지는 항상 조심해서 자신을 살펴야겠다는 것이다.

수필 릴레이



출가 생활

자율/사집



초 겨울 쌀쌀한 바람이 불어 오던 재작년 12월 28일! 내가 출가의 동기를 마련한 날이다.

그날 저녁 지금의 은사스님께서 공양을 드시다 말고 나에게 출가하면 어떻겠냐고 언지시 물으셨다. 당시 난 방위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무얼 할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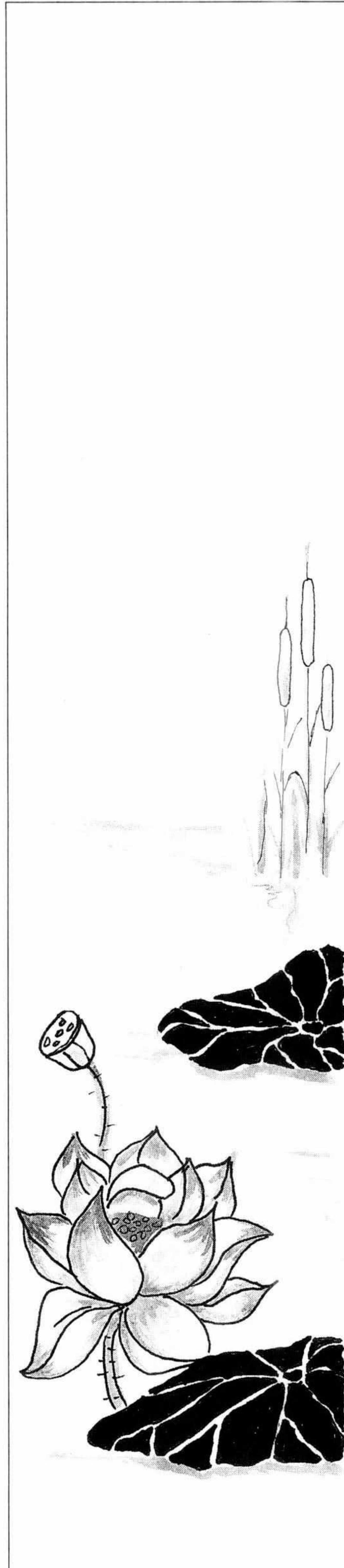
던 차였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나로서는 웬지 싫지 않았다. 하지만 나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장가 안가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는 자식이 출가승이 되는데 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출가를 단행했다. 그 눈물이 힘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며칠 지나고 나서 삭발을 했다. 속세에서 물든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 둘 떨어질 때 무어라 표현 못할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중순경에 행자교육을 받게 되었다. 전국에서 나와 똑같은 행자들이 모인 것을 보고 한편 뿌듯하고 많은 힘이 되었다. 3주간 승려생활의 전반에 대해 어렵듯이나마 익히고 배웠다. 교육기간 동안 별점도 받고 참회도 했다. 배가 굉장히 고프고 짜증도 많이 났으며, 갑자기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나 스스로는 대단히 힘든 것인양 나를 너무 추켜세웠던 것 같다. 21일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어 가사장삼을 수하고 사미 10계를 받을 때, 고향을 향해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눈물이 울적 솟아났다. 난 정말 불효 자식이다.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리고 연비를 하면서 뜨겁게 살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참회진언을 불렀다. 이 세상의 무엇이 소중한지 않은 일이 있겠는가 마는, 내가 이렇게 계를



받고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출가 사문이 된 것이 한없이 기뻐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으로 범어사 일주문을 나왔다. 날 것 같았다.

저녁 늦게 말사에 돌아와 은사스님께 인사를 드렸다. '자월이 살이 많이 빠졌구나' 하시면서 아직은 참된 수행자가 되기 위해 처음 걸음마하는 아이와 같으니,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올바른 스님이 되라고 하셨다.

몇 달이 지나 작년 9월 송광사 강원에 입방하게 되었다. 송광사에서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이제 출가한 지 2년 남짓 되어간다. 조금씩 중물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 글을 쓰자니 몇 가지 생각이 스친다. 나는 얼마만큼의 수행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불교에 대해서 남들이 물었을 때 얼마만큼 명쾌하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출가인의 모습인가?

이런 나를 불교와 인연맺어 주신 은사스님께 감사하며, 일체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늘 푸른 낙락장송과 같은 수행자가 되리라 다짐해 본다.

쥐뿔도 모르실랑

정효 / 치문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주인이 좋아하는 술을 훔쳐 마시니 하늘이 핑핑 돌고 천하에서 제가 제일 잘난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쥐구멍을 뛰쳐 나왔다. ‘어떤 놈이 내가 하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해.’ 하며 콧노래를 멋드러지게 부르고 있는데 고양이가 비호같이 달려 들었다. 이 찰나 어차피 죽을 것 최후 수단을 써 보자 하고

“고양이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놈 어두운 곳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살자니 어디 서럽고 부끄러워 살겠습니까. 그래서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기왕 죽을 바에야 밝은 별이나 실컷 보고 죽자고 이렇게 나왔다가 고양이님을 만났습니다. 그러.” 하고 눈을 찼다. 고양이 왈 “야 이놈아. 그렇다고 이러면 쓴다냐, 쇠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도 모르냐?” 하며 슬그머니 놓아 주니, 쥐왈 “쥐구멍에

도 별들 날 있네!”

옛부터 뱃사람들은 쥐를 잡지 않고 오히려 보호한다는데 출항을 하려고 할 때 선실에서 서식하던 쥐들이 떼지어 꼬리를 물고 육지로 탈출하면 출항을 포기했다



고 하며 이를 무시하고 출항했다가는 흔히 재난을 당했다고 한다.

또 닭장 속의 달걀을 쥐 한 마리가 안고 다른 한 마리가 그 쥐의 꼬리를 물고 끌고 가는 것이라든가, 찬장 속에 넣어둔 병속의 참기름을 긴 꼬리를 넣어

야금야금 빨아먹기도 해서, 지나치게 교활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을 빗대어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옛날엔 신언서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리분별이 어두운 사람이나, 앞뒤 사정도 잘 모르고서 아는 체하는 사람을 가리켜 ‘쥐뿔도 모르실랑’이라 했다.

그럼 이 속담이 생기게 된 내력을 살펴보자. 옛날 부자집 사랑방에 새끼쥐 한 마리가 들랑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 새끼쥐에게도 아침 저녁 밥상머리에서 밥 한술씩 던져 주었다. 이러길 여러 해 계속하니, 어느덧 강아지만하게 자랐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이 의관을 벗어 놓고 칩간에 다녀오니,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의관을 차려입고 앉아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주인이 기가막혀 맞고함을 치니 집안식구가 몰려왔지만 도통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 가려달라고 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 결국 고을 원님께 찾아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원님이 피를 내어, “당신 집에 독이 모두 몇 개요?” 하고 물으니 진짜 주인은 꿀먹은 벙어리이고, 가짜는 “큰 것이 2개요, 작은 것이 3개입니다.” 하고 술술 대답하였다. “부엌 살강에 수저가 몇 개요?” 하니 진짜 주인은 또 뒤통수만 긁적거리는데 가짜가 “어린애 수저까지 모두 9개입니다.” 하니 원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짜의 승리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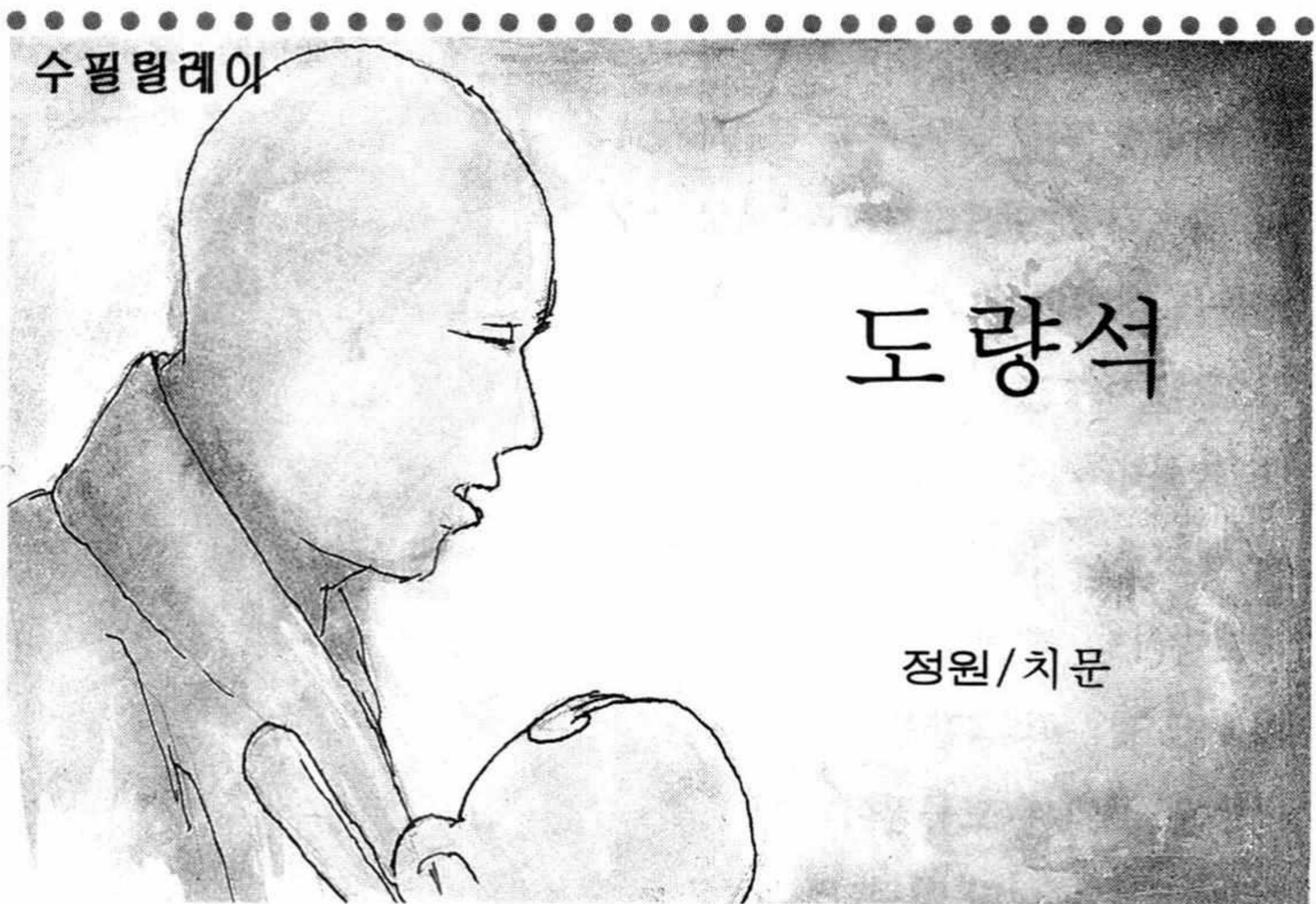
진짜 주인은 쫓겨나서 몇 해를 빌어먹으며 떠돌다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무에 목을 매고 말았다.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보고 줄을 끊어 살려주었는데, 주인이 하도 원통하고 서러워서, 자기가 겪은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다. 다 듣고 난 스님은 “당신이 키워준 쥐한테 당한거요, 우리 절에 삼십 년 묵은 고양이가 있는데, 빌려 줄테니 옷소매 속에 숨기고 가짜에게 화가 치밀대로 치밀게 한 다음에 고양

이를 던져버리시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절에서 고양이를 받아 들고 길을 떠나 옛집에 이르니, 날이 저물어 마침 식구들이 둘러 앉아 저녁밥을 먹는 중이었다.

가짜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이 쥐새끼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해대니, 가짜가 화가 치밀어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데, 이때 고양이를 확 던졌다. 고양이가 가

짜의 목을 꼭 물자 사람만한 쥐가 나자빠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가 엮고 있던 아이도 물어버리니 쥐새끼가 아닌가. 이때 진짜 주인이 자식들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애비와 쥐도 구별 못한단 말이나?” 다음에는 아내에게 큰소리를 쳤다. “이 못한 여편네야, 쥐뿔도 모르실랑 쥐새끼까지 낳아 업었더냐?”



출가자라면 누구나 도량석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나 또한 입방한 지 채 한달도 안되서 기회가 주어졌는데 ...

첫날 밤은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12시가 넘도록 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2시였다.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를 수가 없어 그냥 앉았다가

대충 씻고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응전으로 가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촛불을 켜는 등 분주함 속에 첫날 도량석을 마쳤다.

둘째날은 첫날의 피로 때문인지 곧바로 잠이 들었다. 중간에 한번 깨어나 시간을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잠들었다가 자명종 소리에 일어났다가 깜박 졸아 다른 자명종 소리에 일어

났다. 2시 45분이었다. 부랴부랴 서둘러 그런대로 마쳤다.

마지막 날. 이틀을 사고없이 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자명종을 확인하지도 않고 잤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깨어 보니 3시 5분이었다. '야단났다' 하고 후다닥 지대방문을 여니 "아니, 누가 도량석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목탁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나가봐요" 라고 말하는 스님이 계셨다.

재빨리 가사 장삼을 수하고 가보니 대웅전은 어둠 속에 묻혀 있고 노전스님께서 도량석을 들고 계셨다. 예불을 마치고 와서 자명종을 확인해 보니 하나는 놀려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예 맞춰 놓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공양 시간에 도성당 노스님을 모시러 갔더니 스님께서 '오늘 누가 도량석을 돌았느냐'고 물어 보시길래 내가 돌아야 했는데 늦잠자서 돌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만히 웃으시면서 시계가 없느냐고 하셨다. 내가 도량석을 돌지 않은 것을 치문반 스님들은 모두 알고, 사집반 스님 몇 분도 알고

있었다.

오전에 노전스님께 참회드리러 갔는데 문에는 열쇠가 채워졌고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오후에 다시 가려고 생각했는데 사시공양 진지할 때 천수를 돌리다가 발우 밖으로 물을 쏟은 곳이 하



필 노전스님 자리였다. 일진이 너무나도 사나웠다. 찾아 뵈려고 했던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다. 약석 때에 대중스님들은 죽비에 맞춰 발우를 펴고 있는데, 나 혼자서 벌떡 일어나 진지하러 가질 않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 종일 어떤 참회가 내려질지 조마조마 했는데, 드디어 소공사 시간이 되었다. 찰중스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서 스스로

대중스님께 도량석을 돌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일주일 1,080배 참회 하겠다고 하였더니 찰중스님께서 다시 참회를 내리겠다고 하였다. 삼경 이후에 가사 장삼 챙겨 사자루로 가서 절을 하는데 온 몸이 땀으로 젖고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나고... 이렇게 천배를 하고 나니 조금은 개운해졌다.

이날부터 나에겐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바로 "참회제일"이었다. 내게 내려진 참회는 일주일간 천팔십배와 도량석이였다. 절은 두시부터 네시까지 하라고 하였다. 도반들은 내가 한 번만 도량석을 돌지 않으면 앞으로 한달은 도량석 돌 걱정없겠다고 놀려댔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3일간은 잘 하였는데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다. 내가 너무나 안쓰러웠던지 도반들이 찰중스님께 건의해서, 그날로 도량석은 그만 돌게 되었고, 참회만 하게 되었다. 놀려댈 때는 그렇게 미울 수 없었는데, 그래도 도반 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런 맛에 송광사 강원에 산다.

전강스님의 전기를 읽고

보안/치문

“스님께 드릴 말씀은 오직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수행자답게 잘 할게요.”

내가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사 년 전, 인천 용화사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생전에 하셨던 법문을 녹음 테이프로나마 듣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법문 내용은 떠오르지 않지만 스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했던 것으로도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지난해 출가하여 여러 큰 스님의 전기를 읽다가 스님의 전기를 대하고 눈이 확 뜨이는 느낌을 받았다.

종술(스님의 속명)이 어린 나이에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던 시절, 배가 고파 광에서 몰래 감자를 꺼내어 구워 먹다가 들켜서 계모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는데 속도 모르고 나무라는 아버지, 그러던 아버지마저 열두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

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난감한 것은 계모가 이복 동생을 남겨 두고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에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오촌 당숙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동생과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에는 그것이 출가 동기가 되었고, 선지식이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해인사로 가서 인공스님과 인연이 되어 행자 생활을 하고 영신이라는 법명을 받는다. 수계를 하고 해인사 강원에서 경을 보던 중에 도반인 봉령이라는 사미가 한 신여성을 사모하다가 결국 상사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인생 무상을 실감하고 발심하여 참선에 뜻을 두게 되었다.

처음에 만공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아 참구하였으나 공부에 진척이 없자, 용성스님 문하에서 지내려고 서울로 올라갔다. 화두가 제대로 잡히지 않자 틈만 나면 시내로 나가 놀러 다니게 되었고, 그 소문이 은사



스님 귀에 들어가 급기야는 청암사로 붙들려 내려가게 된다.

청암사에서 경을 보다가 재발심하여 생사를 걸고 정진한 결과 스물셋이라는 어린 나이에 견성을 하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법거량을 하고 스물다섯에 만공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전강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정진 중에 얻은 병을 항상 몸에 지닌 채로 열심히 정진하신 스님, 공양을 조금만 드시려고 반찬을 드시지 않으셨다는 대목에서 음식 조절을 못해 혼침에 자주 빠지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요즘 사람들은 편안하고 감미로운 것만 좋아한다. 그러나 그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양제가 되는 것인지 깊이 살펴보아야겠다. 입에 쓴 약은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행에 도움이 된다고 않는가?

알기는 쉬어도 행하기는 어렵

다는 말을 갈수록 뼈저리게 느낀다. 전강스님 뿐 아니라 어느 큰스님의 행적을 살펴보아도 편히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며 대도를 성취한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오늘 당장 음식 조절부터 잘 해서 과식하지 않고, 삼경 후 10분 만이라도 좌선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겠다.

입방소감

두 가지 기록

승석/치문

나는 타 종단인 태고종 선암사 승려로서 송광사 강원에 입방했다.

결제날 입방하게 된 까닭은 선암사 주지스님이 오래 전에 송광사 주지스님께 강원 확인 한 명을 보내겠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송광사 주지스님은 알아서 보낼 줄 알고 기다리셨고 선암사 주지스님은 보내라는 확답을 듣고 보내려고 기다리다가 결제날 아침에야 서로 연락이 된 모양이다.

주지스님께 인사 올리러 갔더니 내가 타 종단 승려이면서 결제날 방부들이고 입방하는 두 가지 기록을 세운 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양해해 준 대중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다.

또 광원암에 계시는 현봉스님을 찾아뵈었는데 선암사와 송광사는 예로부터 스님들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어려울 때는 법을 전해 주기도 하고 전해 받기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그 예로 침굉스님과 백암 성총스님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셨다.

명성각 동당스님께서는 당신의 저서인 '선의 세계'와 '계율강요'를 친히 주시면서, 화엄전 소개와 더불어 계행을 잘 지키며 부지런히 수행하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고통받지 않고 입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청정하고 철저한 수행을 당부하셨다.

어디나 텃세라는 것이 있고, 통과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나는 처음에는 약간의 갈등 같은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주시는 도반스님과 윗반스님들을 보며 수행자의 참모습을 느끼게 되었다.

송광사 강원에서 생활하면서, 윗반이라고 해서 아랫반에게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가족회의를 하듯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흔쾌히 양해해 주신 대중스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송광사의 좋은 수행가풍을 따라 청정하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약속드린다.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수행의 향훈을!

순수 강원지 해청당은 학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편집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인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하고 오직 인쇄만 외부 인쇄소에 맡겨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아래의 온라인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1676 - 0016222 - 12

예금주 : 강정신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541 - 930

송광사불교전문강원 내 「해청당」 편집실

후원하여 주신 분들

종무소, 강주스님, 대경, 덕운, 지호, 소휴, 익명의 스님, 서미영, 주인호, 류인석, 전희진, 박혜경, 심원택, 박명숙, 최혜진, 지귀영, 정복자, 대지심, 불일희보

편집 후기

●...사자루에서는 '여름 수련회'가 한창입니다. 저녁이면 장군죽비 소리가 요란하여 오히려 참선시간을 다 빼앗는 듯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정좌하고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해청당」을 편집하는 것도 학인

들로서는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6호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상



에 나오게 된 것은 강원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와 양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짜여진 편집위원들도 정말 열심히 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워드 작업이며 교정, 삽화그리기며 사진 한 장 고르기까지 열심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半운력(?)으로 된 원고 중에서 일부가 실리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지면의 작은 탓이라고만 몰아세워 봅니다만 죄송한 맘 가득합니다.

2539년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신·편입 방부 안내

2539학년도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 명
	사집반	편입 ○ 명
	사교반	편입 ○ 명
	대교반(80화엄)	편입 ○ 명

자격	치문반 : 사미계 수계자
	사집반 : 치문 수료자
	사교반 : 사집 수료자
	대교반 : 사교 수료자

제출서류	방부원서	1 부
	은사스님 추천서	1 부
	승적사본	1 부
	주민등록등본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수료증 (편입생)	1 부
	사진 (3×4)	3 매
	방부금	20만원

준비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발우

전형방법 : 서류, 면접

방부기간 : 2539년 8월 11일 ~ 9월 9일 (양력)

문의처 : (0661) 53-213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 광 사 불 교 전 문 강 원



法性寮*

山 얼굴 簾에 달고 물소리도 房에 든다
절안의 젊은 중들 經 배우느라 看經三昧
이따금 講經竹籠만 寂靜깨워 오더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법성료는 현재 강사스님들의 요사 및 경반 강의실, 도서관 등으로 쓰이는 큰방이다. 새로 불사하여 단장할 예정이다.